

프리미엄 석간경제지 이투데이가 10월4일 창간합니다

■추석 앞둔 재래시장·백화점 찾아가보니

사과 2개에 만원이라니 상인도 손님도 한숨만...

"사과 5개 만원이 2개에 만원이 되니 누가 사겠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임철수(청과업·62·개봉동)씨는 울상이다. 태풍과 날씨 탓에 과일 작황이 좋지 않아 어렵게 물건을 구해와 팔아도 비싼 가격 때문에 손님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사과 5개 만원이 2개에 만원이 되니 누가 사겠어요. 바나나 포도 등 값이 적게는 20~50%까지 뛰었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 주머니 사정 알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어도 비싸게 못 팔아요. 거의 손해 보며 파는 꼴이죠. 추석이면 그래도 오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오늘도 영 사람이 없네요"라고 말했다.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30분 만에 찾아온 주부는 바나나 2쪽에 천원이라는 말에 곧바로 등을 돌려버렸다.

한산한 남대문 시장
건너편 백화점은 북적
상차림·선물 양극화

반면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 상품권 판매율은 전년에 비해 30%이상 늘어나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완연한것 아니냐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기업실적이 좋아져 그만큼 추석상여금이 두둑할 것이기 때문에 올 추석은 그나마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태풍 콘파스와 이상기온 등으로 과일이나 채소 등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서민들이 파부로 느끼는 추석경기는 바닥이다. 차례상에 올리는 과일수를 줄이고 채소가 많이 들어가는 된장찌개를 줄이고 김치찌개를 끓여먹겠다고 할 정도다.

지난 10일 본지는 재래시장과



민족 대명절인 추석연휴를 앞둔 10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에 마련된 추석선물 코너는 선물, 제수용품 준비하려는 고객들로 북적였다. 임영무 기자 darkroom519@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등을 돌며 소비자들이 느끼는 추석 체감경기를 알아봤다.

◇ 남대문 등 서민 찾는 재래시장엔 발길 '뚝'

서민들이 한 풀이라도 아껴보려고 가는 재래시장은 지금 장이 열리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사람들이 뜸했다. 추석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한산한 분위기에 시장은 한가위의 풍성함은 찾기 힘들었다. 재래시장을 찾는 수가 전년 대비 삼분의 일이나 줄었다고 했다.

시장으로 어려운 발길을 한 사람들도 명절선물을 사러 왔다가 보다는 평소처럼 몇 가지 팔

요한 물건만 봉지에 챙겨 가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하나로마트 양재점도 추석을 앞두고 선물세트를 구입하려는 알뜰족들로 붐볐다. 하지만 선풍기 추산선물세트를 집어가는 고객은 많지 않았다. 아직 추석까지 1주일 이상 남아있는 탓도 있겠지만 요즘 추석선물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이다.

김현자(36, 주부)는 "수박 한 덩이에 1만원짜리가 이제는 2, 3만원 가까이 줘야 살 수 있어요. 과일 외에도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올라 계산할 몇 가지는 빼요"라고 말했다. (3면에 계속)

윤철규 기자 yoonck@

고속전기차 시대 본격 개막

국산1호 '블루온' 공개...정부, 2020년까지 100만대 보급

현대차,日이어 두번째 양산체제 갖춰

현대자동차가 지난 9일 고속전기차 '블루온'(BlueOn)을 공개, 국내에서도 전기차 시대가 본격 도래했다. '블루온'(BlueOn)은 현대차의 유류수출형 경소형차 i10을 바탕으로 국내 부품기업 9곳, 중소·중견기업 34곳 등 총 44개가 개발에 참여했다.

정부는 향후 10년 안에 전기차 100만대 시대를 연다는 목표 하에 오는 2014년까지 고속전기차 양산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블루온'(BlueOn)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개발한 차로 우리 기술로 조기에 전기차 시대를 열 수 있게 됐다.

블루온은 현대차의 친환경 키워드인 '블루'와 본격 전기차 시대를 연다는 의미의 '온'을 의미한다.

차체는 현대차지만 전기차의 핵심 기술인 배터리는 SK에너지가

개발했고 전기모터는 효성의 기술이다. 이밖에 LS산전의 인버터, 현대위아의 감속기어, 현대모비스의 직류변환장치 등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국산 1호 양산형 고속전기차 블루온은 같은 개념의 전기차 일본 미쓰비시의 'i-miEV'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양산된 고속전기차다. 그러나 주행거리와 동력성능은 미쓰비시를 이미 앞섰다.

블루온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시간이 13.1초에 불과하고 최고시속도 130km에 이른다. 이는 가솔린 1300cc 소형차 수준이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항속거리와 충전시간도 세계 최고수준에 올랐다. 1회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140km에 이른다. 충전시간은 6시간, 그러나 급속충전 시설을 통한 25분 만에 배터리의 90%를 채울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전기차 가격의 절반에 달하는 고가의 배터리와 충전에 따른 불편함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90% 수준에 도달한 부품 국산화율도 올 연말까지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현재 서울, 과천, 인천 등 9개 지역에 16기의 충전시설을 설치한 정부는 2011년 상반기까지 전국 단위의 충전인프라 구축 로드맵을 수립, 2020년까지 공공시설, 대형마트, 주차장 등에 충전기 220만대를 설치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5년 국내 소형차 시장의 10%, 2020년 국내 승용차 시장의 20%를 고속전기차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 개발을 위해 개발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고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2012년부터 개발을 추진기로 했다. 정부는 배터리를 1~2분 만에 교환해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교환소를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기차 '블루온' 공개 행사에서 직접 시승하고, 짧은 개발기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를 개발한 업체 및 현장기술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SK 폴리실리콘사업 시동

케미칼 울산공장 시험가동
상업생산 여부 연말께 결정

SK그룹의 계열사인 SK케미칼이 이달 안으로 울산공장에 폴리실리콘 파일럿플랜트 건설을 마무리 짓고 시험생산에 들어간다.

13일 SK케미칼에 따르면 파일럿 플랜트 운영 결과를 놓고 폴리실리콘 사업 진출을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폴리실리콘 기술 도입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달 안으로 울산공장 부지에 (대만 SREC사에서) 건설중인 폴리실리콘 파일럿플랜트가 완공돼 시험생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SK케미칼은 지난해 5월 폴리실리콘 원천 기술을 보유한 대만 SREC사와 폴리실리콘 기술도입·생산에 관한 MOU를 체결했었다.

SREC사의 특수공법을 이용해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면 기존 방식인 지멘스 공법에 비해 생산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SREC의 기술은 기존 공법과 차별화된 것으로 기술적용에 시간이 필요했다"면서 "이 기술이 적용돼 폴리실리콘이 생산되면 제품가격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케미칼은 시험생산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사업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김 부회장은 "연말까지 파일럿플랜트 운영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상업생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K케미칼이 폴리실리콘 상업생산을 최종 결정하면 SK그룹은 SK케미칼(폴리실리콘)-SKC솔루션(임꺽·웨이퍼)-SKC(셀·태양전지 필름)로 이어지는 태양광 소재 사업 수직계열화를 구축하게 된다.

안경주 기자 ahnjk@

한국, 국가경쟁력 3년연속 하락

WEF 평가 22위...노사협력은 꼴찌서 두번째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지수가 3년 연속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WEF의 2010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39개국 중 22위를 기록해 3단계 하락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WEF 순위는 2006년 23위를 기록하고 2007년 11위까지 올랐다가 2008년 13위, 지난해 19위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프라(17→12위), 거시경제 환경(11→6위), 고등교육 수준(16→15위) 등에서는 순위가 상승했다.

그러나 기업혁신(11→12위)과 고용·하고 관행(108→115위), 금융시장 성숙도(58→83위), 은행 건전성(90→99위), 정부 규제 부담(90→108위), 정책 투명성(100→111위) 등은 크게 하락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사간 협력은

131위에서 138위로 하락, 최하위인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5월 IMD 순위에서 58개국 중 23위로 4단계 오르면서 3년 연속 상승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런 결과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재정부 관계자는 "WEF에 통계의 비중을 높여야 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고 밝혔다.

WEF 설문은 올해 2월~5월, IMD 조사가 4월 이루어져 비슷한 시기에 재학생과 회원을 대상으로 유사한 방식의 설문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같지만 WEF 순위는 통계가 30%, 설문이 70%, IMD 순위는 통계가 60%, 설문결과가 40%를 차지하는 점이 다르다.

이한선 기자 griffin@

국가재산의 가치를 밝힙니다
국유재산 관리 및 개발

국민의 행복을 밝힙니다
신용회복금융
마이크로파이낸스

우리 기업과 금융을 밝힙니다
구조조정금융
부실채권정리금융

우리경제를 지키는 빛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밝힙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에 활력을 불어넣어 **환한 빛**으로
나라재산을 보호하고 가치를 높여 **참된 빛**으로
빛 때문에 힘든 서민의 가계부담을 줄여 **빛을 빛**으로

우리경제를 다시 희망하게, 더 안전하게 지켜내는 일
그 중심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

■ 8·29 부동산 대책 2주일, 부동산 시장에선…

약발 미미…호가만 높아져 거래시장 ‘공공’

“8.29대책 이후 한 건도 계약 못 했다. 차라리 대책을 내놓지 말지...”(분당 서현동 A공인 대표)

정부가 거래활성화 대책이라고 발표한 8.29대책이 오히려 시장을 공공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집주인들은 호가를 높이고 사려는 사람은 값이 싼 급매물만 쳐다보는 탓이다.

향후 집값 향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인 강남 재건축 시장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풀어 거래를 늘리겠다는 8.29대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

특히 매매로 돌아서야 할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전세매물만 찾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8.29대책 이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거래가 늘어나지 않는 등 아직은 대책 효과가 시장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은 집값이 오른다 하지만 호

가일 뿐 정작 거래는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8.29대책의 수혜지역으로 관심을 모았던 분당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집주인들은 호가를 높이며 배짱을 부리고 있지만 매수세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실제로 8.29대책 이전에는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 163㎡의 경우 8억원 초반대 가격에 비교적 쉽게 거래가 성사됐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끊겼다. 집주인은 3000만원 이상 호가를 올리고 있지만 구매자는 가격이 싼 급매물만 찾고 있기 때문. 특히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종과완화 시한 2년 연장으로 매물을 회수하거나 보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둘러 집을 팔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용인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집주인들이 8.29대책 이전에 내놔던 물건을 회수하거나 보류하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용인 상현동 성원 상패

빌 109㎡은 8.29대책 이전 3억1000만원정도에 거래가 간혹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매도매수 호가의 갭이 5000만원 이상 벌어지며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 호가만 3억

실주공 5단지의 경우 8.29대책 이후 거래가 올스톱 됐다.

잠시 호가가 오르기도 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상태. 112㎡의 경우 최근 1주일 새 가격이

매도 매수 호가 갭 벌어져 매수세 없어
실수요자는 여전히 전세 매물만 기웃
DTI폐지로 강남 재건축 가격 떨어져

5000만원까지 올라 있다.

강남 재건축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DTI폐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데다 앞으로 가격 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강남지역의 대표적인 중층 재건축 단지인 잠

2000만원 떨어져 10억8000만원 정도가 시세다.

5단지 인근 B공인 대표는 “8.29대책 이후 이 단지에서 거래가 한 건도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다른 대책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가격을 낮춘 매물이 출현하고 있다. 이마저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변의 대치동 은마아파트 역시 매수·매도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8.29대책 이후 단지를 통틀어 거래가 1~2건에 그치고 있다. 102㎡의 경우 3000만원 정도 반짝 상승했지만 매수세가 끊겨 8억7000만원에서 시세가 멈춰섰다.

은마아파트 단지 내 C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호가는 9억원까지 올라 있지만 매수세가 따라와주지 않고 있다”며 “최근 주민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지만 재건축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어서 아직 관망세가 짙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



아이폰4 국내 개통1호 KT가 10일 오전 8시 광화문 KT사옥 올레스퀘어(olleh square)에서 가진 애플(Apple)의 ‘아이폰 4’ 런칭행사서 1호 개통자로 선정된 가입자가 아이폰4를 들어보이며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mytixer@

이투데이 漫評

유영수
(yoobil@hanmail.net)

미래경제 선도하는 바른 뉴스

이투데이

www.etoday.co.kr

발행인·편집인 김상우

편집국장 김중현

광고국장 김진택

증권부 (02)799-2658

산업부 (02)799-2664

금융부 (02)799-2661

국토신정·배달인내 (02)799-2603

유통경제부 (02)799-2667

경제부 (02)799-2655

국제부 (02)799-2650

(02)799-2604

온라인부 (02)799-2640

사건부 (02)799-2633

편집부 (02)799-2620

광고전수·광고문의 (02)799-2601

(02)799-2602

2006. 4. 27 등록번호 서울 다 0737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1부 1500원

한달 6000원

150-7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6 센타빌딩 6F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산업계 “보복 없을까” 이란제재 후폭풍 ‘촉각’

국내 산업계가 정부의 대(對)이란 제재로 인한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대이란 제재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장기화할 경우 대이란 관계 악화와 보복조치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란과 거래가 있는 기업들로서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이나 광고 금지 등 이란 정부의 보복조치 실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전자업계는 이란 제재 문제가 수개월 전부터 논의된 탓에 송금은행을 국내 은행에서 두바이 현지 은행으로 변경하는 등 나름대로 대비를 해와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는 이란과의 거래는 한국 본사가 두바이법인과 거래하고 이후 두바이 법인이 이란 내 에이전트와 거래하는 형태인데, 두바이법인과 이란 에이전트와의 거래는 국내은행과 현지은행 등 복수의 은행을 통해 이뤄져왔다.

LG전자는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논의가 불거진 7월 중순 이후 국내은행과의 거래를 현지은행으로 전환해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한국 가전제품의 이란 내 시장점유율이 50~60%에 달해 최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란의 경우 구매력

이 높아 연간 매출이 10~20% 성장하는 등 잠재력이 높은 국가여서 사태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건설사는 이란에서 15억6400만달러 규모의 공사를 진행 중인데 이중 시공잔액은 11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는 지금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제재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율 인상 등 가능성
국내 산업계 전전긍긍
中 小 企 피해가 더 클수도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제재가 심화하면 자재 수급 등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는 정부의 제재안으로 원유 수입대금 결제에 차질이 빚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안심하는 분위기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이란이 원유 수출 중단과 같은 강력한 보복조치를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

론 현물시장에서 원유를 사오며 장기적으로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피해는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란과 교역하는 국내 업체 수는 2142개이며 이 중 80.9%가 교역규모 100만달러 미만의 중소 수출업체다.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가 지난달 이란과 거래 실적이 있는 수출 중소기업 7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포괄적인 이란 제재법이 발효하면서 피해를 본 업체가 전체의 56%에 달했다.

수출 거래가 중단됐다고 응답한 업체도 31.5%나 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교역을 유보하는 중소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트라는 “이번 우리 정부의 이란 독자제재로 연간 40억달러의 대이란 수출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이란에서 신용장으로부터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대형 품목과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석유·가스 정제 관련 기자재 수출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경주 기자 ahnkj@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작 「아델 블로흐 바우어부인」(1907)

제품이 다르니까, 효과도 다릅니다

명작과 펜잘큐의 만남

피린계 성분이 없는 두통약-펜잘큐

워니워니해도 두통약은 효과입니다. 개운함이 확실해! 좋은 두통약입니다. 펜잘큐는 피린계성분이 없는 두통약입니다.

두통·치통·생리통에
펜잘큐정

•펜잘큐정 효능 효과: 두통, 치통, 생리통 등

내복약

몸살은 물론 감기의 초기증상에도 좋은 마시는 펜잘큐에도 있습니다.

•펜잘큐정 효능 효과: 감기의 증상(코막힘, 콧물, 두통 등)의 완화

광고심의필: 1001-0400

만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펜잘큐정 효능 효과: 감기의 증상(코막힘, 콧물, 두통 등)의 완화

친환경 앞세운 ‘고속전기차’의 질주 자동차 산업 ‘근본’을 바꾼다

■국내에서도 전기차 상용화시대 본격 개막

현대자동차가 고속전기차 블루온을 선보이면서 국내에도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열렸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을 대신할 친환경 자동차다. 동시에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차세대 자동차 동력원의 궁극적으로 손꼽히고 있다.

하이브리드는 과도기, 궁극점은 고속전기차=최초의 자동차는 증기나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였다.

그러나 당시에도 배터리 성능이 뒷받침되지 못해 곧바로 내연기관 자동차에게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가 운행된 지 100년이 지났고 배터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숙제들이 점차 풀리면서 전기차는 내연기관의 대안으로 다시 각광받고 있다. 무엇보다 친환경성을 앞세워 다음 세대 자동차 동력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전기차는 국제 기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근거리 단순 이동을 위한 NEV(Neighborhood Electric Vehicle)가 있다. 주로 공항 또는 골프장에서 카트가 여기에 속한다.

둘째 지난 4월부터 국내에서도

도심주행이 허용된 CTEV(City Electric Vehicle), 즉 저속전기차다. 이름 그대로 일반 도심지 주행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차다. 최속속도(60km)와 항속거리(50km)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도 법적인 제약에 걸려있다.

내연기관 차량 100년 만에 기술적 문제 해결 日 토요타 과도기 장악·美 GM 트렌드 주도 배터리가 최대 핵심기술… 무게·부피 관건 LG화학등 셀·전기부품·HW등 기술확보

셋째가 FSEV(Full Speed Electric Vehicle)로 불리는 고속전기차다. 최고시속 100km 이상과 1회 충전 항속거리 100km 이상 되는 모델이 여기에 속한다.

현대차가 지난 9일 공개한 블루온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반 승용차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성능을 지

녔고 1회 충전 때 드는 비용도 우리 돈 1000원 안팎이다.

이러한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그 사이의 과도기를 책임질 주인공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한때 부각됐다. 그러나 내연기관과 전기모터의 결합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때문에 예상보다 과도기는 축소됐고 곧바로 전기차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고속전기차 개발의 선두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혼합된 양산 하이브리드의 주인공은 1997년 세계 최초로 선보인 토요타 ‘프리우스’다. 토요타는 프리우스의 꾸준한 판매증가를 통해 현재까지 100만대가 넘는 하이브리드 시장을 개척해 왔다.

토요타는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와 함께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로 인식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판매 증대에도 이어져 최근에는 세계 자동차 1위업체인 GM을 앞서기도 했다.

반면 미국의 GM은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시도했던 하이브리드 대신 곧바로 전기차 시대로 뛰어들며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때문에 최근 미국 GM의 전기차 표준이 곧 글로벌 전기차의 기본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다. GM은 ‘시보레 볼트(Volt)’를 앞세워 본격적인 양산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전기차의 핵심기술은 차가 아닌 배터리=볼트는 지난 2007년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컨셉트카로 첫 등장했다. 올해 말 미국에서 첫 양산돼 미국 미시간주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기 1호차 출시식에 참석, 전기차를 직접 운전해 본관 앞을 돌고 있다. 【연행뉴스】

이런 전기차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은 배터리 기술이다. 최근 트렌드는 기존의 니켈 배터리에서 리튬 이온 또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대세를 이룬다.

각각의 특성보다 개발비용과 성능, 무게에 따라 배터리 종류도 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하나의 커다란 배터리보다 작은 배터리 여러 개를 엮어 만든 병렬 구성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무게와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성능을 키울 수 있어 향후 대안으로 떠오르

고 있다. 최근에는 차량 제동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 배터리 팩에 저장해 전기 가동 시간을 늘려주는 방법도 도입된 상태다.

플러그인 전기차의 경우 일반 가정에서 손쉽게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또한 충전 시간은 240볼트 전원을 기준으로 3시간이면 충분하며, 전기를료 휘발유 값으로 대비하면 16% 수준이다.

GM은 전기차 시대에 대비, 최근 국내 LG화학과 손을 잡았다. LG화

학은 시보레 볼트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을 비롯한 주요 전기 부품, 하드웨어 등을 공급하게 된다. 이처럼 ‘전기차 성능=배터리 기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면서 향후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회사가 아닌 배터리 회사가 주도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10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배터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기차가 경제성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조상님, 차렷상 가짓수 줄이겠습니다”

태풍·호우 직격탄 맞은 과일등 제수용품 급등

◎ 1면에서 계속

김씨는 또 “중소 식품제조사에 다니는 남편의 명절 보너스도 지급되지 않거나 조금 밖에 안 나올 것 같다”면서 올해 추석선물은 비교적 저렴한 멀치 세트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태풍 환파스의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은 품목은 청과다.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사과는 5kg(16개) 기준으로 지난주보다 4000원(8.7%) 오른 5만원, 배는 7.5kg(12개) 기준으로 2000원(4.7%) 오른 4만5000원에 팔리고 있다. 복숭아는 4.5kg짜리가 3만9500원으로 1만원(33.9%)이나 올랐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석을 앞두고 이 같은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기업과 달리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추석 체감경기는 과일 등 제수용품의 급등으로 작년만 못하다는 게 일반적이다.

◇ 백화점엔 고객 몰려 제품 ‘품절’…상품권도 전년 대비 30% 더 팔려

“고객님, 최상급 한우가 팔플렛에 제시된 가격보다 더 저렴해요. 한번 둘러보세요.”

한가위를 앞두고 선물을 사려는 사람들로 롯데백화점 송파동점 식품관은 평일 오후 시간인에도 북적거렸다. 과일, 건어물, 육류 등 추석선물을 판매하는 코너에는 배송담당 직원들이 따로 상시 배치돼 물품을 전국 방방곡곡으로 보내기 위해 상품 포장에 여념이 없었다.

배송 담당 직원은“추석 당일 맞춰서 선물을 보내기보다 미리 여유롭게 추석선물을 차분히 고르는 고객 분들이 많아요. 추석 전 10일인 지금이 가장 피크예요. 저희 백화점에서는 추석선물 무료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 간편하게 내려가실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갈비, 정육, 굴비, 육통 등 대부분의 추석선물 품목이 전년 대비 약 20% 이상 판매가 늘 것으로 예상해 재고를 넉넉히 준비해 놓고 있다. 특히나 가격에 크게 구애 받지 않는 소비자가 많이 오는 백화점은 ‘추석대박’에 폐재를 부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상품권 판매도 지난 2주간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2% 늘었고,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역시 각각 36.7%, 13.5% 늘었다. 상품권 판매는 추석이 가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21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실태 점검에 나선 가운데 지난 8일 을지로 중부시장에서 시민명예감시원들이 굴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행뉴스】

정부, 유통망 통해 무·배추값 하락 ‘총력’ 날씨·수입물량 고려한 장기적 대책 시급

가이 오면 더욱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화점에서는 심지어 물량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기도 했다. 날씨와 태풍의 영향으로 과일선물코너에 진열된 과일세트에는 ‘롯데 사과세트(20개) 14만원, 특선사과 세트(11개) 11만5000원, 특선사과 하우스배움세트(사과 6개?배 6개) 13만원 제품이 동이 났다.

롯데백화점 소공점 김성배 매니저는 “태풍의 영향과 올해 과일의 성장기인 4월에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과실류의 수확량이 줄었다”며 “추석선물로 많이 쓰이는 대과와 루가 20~30% 감소하였으며 청과 선물 가격도 작년 추석에 비해 15~20%가량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과일을 사러온 김현자(58, 주부)씨는 “매년 마다 과일을 선물로 샀는데 올해는 좋은 과일이 많이 없네요. 좋은 과일을 사러 백화점까지 왔는데 과일 품목이 작년보다 다양하지 않네요. 가격도 더 비싸요”라고 말했다.

◇ 근본적인 ‘물가안정’ 대책 마련 시급

기업설적이 좋아지고 경기회복세에 들어섰다고는 하나 서민들은 추석을 앞두고 한숨만 내쉬고 있다. 가격이 비싸도 백화점은 호조세고 재래시장은 바닥이다. 물가

때문이다. 정부가 과일과 채소값을 잡기 위해 농협유통센터 등을 통해 무와 배추 등을 20% 이상 싸게 공급기로 했다. 마늘의 경우 지난 달 500t 수준에서 1500t까지 늘리고 명태도 5만t을 추가 방출기로 하는 등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양재동 하나로마트와 수도권 5개 농협 유통센터에는 지난 12일까지 할인판매를 하면서 배추는 하루 11만 포기, 무는 3만4000개 한정으로 678을 시중가격보다 20~30%까지 풀었다. 또한 전국 공공기관 주변에 직거래 장터를 250여개 설치하고 농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성수품 구매 적가와 구매처별 가격 정보도 제공기로 했다.

그러나 오르면만 나오는 정비구나 물가를 잡아내리기엔 한계가 크다. 이미 오래대로 올라버린 물가에 대해 일부 유통망을 통한 물가관리는 전형적인 ‘뒷북행진’이라는 것이다. 하나로마트에서 만난 김선정씨(40 주부)는 “폭염과 폭우 등 기상 조건에 대비한 물가관리는 전혀 하지 못한채 명절만 가까와오면 내놓는 이런식의 반짝 세일은 소비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정부에게도 날씨와 수입물량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www.cjgls.com

글로벌 물류혁신 리더!!

CJ GLS가 여러분에게 혁신적인 선진물류를 서비스합니다.
CJ GLS택배는 빠르고 정확합니다.

| 대표전화 : 02-870-6114 |



CJ GLS 글로벌 우수인재 상시 채용

최적의 SCM을 실행하는 아시아 대표 Global 물류기업 CJ GLS에서 함께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요강

구 분	근무지역	인원	지원 자격
사업개발 (Biz Development)	국내 동남아시아 (싱가포르/인니/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중국(홍콩포함))	00명	• Global Account 관리 경험자 • 물류 운영 및 영업 경력 5년 이상 • 물류 프로세스 컨설팅 및 제안 경험자
현장 Operation 관리 (W/H 및 수배송)	유럽 미주	00명	• W/H 관리, 수배송업무 경력 5년 이상 • 물류센터 총괄 업무 경력자 (센터장 경험자 우대) • 다국적 제조업체 물류경험자 우대
Freight Forwarding		00명	• 항공 또는 Ocean Forwarding 경력 5년 이상 • 대형 거래선 대상 Operation 실무 경험자 • Bulk 및 Project Cargo 경험자



글로벌물류서비스

- 수출입 해상운송 서비스
- 수출입 항공운송 서비스
- 컨테이너운송 서비스
- 국제택배 서비스
- Sea & Air 서비스
- 11개국 24개 법인



3자물류서비스

- 공동수송 / 컨설팅서비스
- 배송서비스 / 창고운영관리
- 주문업무 대행 서비스
- 화물 / 차량추적 서비스
- 유통가공 / 부자재 구매대행 서비스



택배서비스

- 집하 / 배송 서비스
- 창고보관 / 유통가공 서비스
- 콜센터 대행 서비스
- 벤더 통합 솔루션 제공 서비스
- 해외 구매대행 배송 서비스



대만 HTC, 아이폰 대항마 부상

무선데이터 통신 기능 ‘에보 4G’美서 인기몰이 “글로벌 브랜드 자리매김”본격 프로모션 나서

대만 최대 이동통신업체 HTC가 애플 아이폰의 대항마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다.

AP통신은 미국 상위 이동통신업체인 버라이즌·스프린트·T모바일 등의 무선이동통신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HTC는 광고와 휴대폰 시장에서의 마케팅을 통해 40%까지 성장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HTC는 글로벌 브랜드의 위상을 수립하기 위해 대만의 또 다른 전자업체 에이서를 톨 모델로 삼고 있다. 이 업체는 전세계 PC 시장에서 2, 3위를 차지하기 위해 델과 시장 점유율 다툼을 벌이고 있다.

또 미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수년 동안 미국의 이동통신업체가 선호하는 제품을 제조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7년부터 HTC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HTC가 처음 자체 브랜드로 단말기를 출시한 후 일부 휴대폰 열리어답터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

HTC는 미국의 2위 이동통신업

체 버라이즌을 통해 ‘드로이드 인크레더블’, 티모바일 USA에서 ‘HD2’, 스프린트에서 ‘하어로’ 등 자사 휴대폰을 공급하고 있다.

HTC는 지난 2008년 4분기 HTC는 370만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3위인 애플의 뒤를 이었다.

1년 반 만에 격차는 더 벌어졌다. 애플은 840만대의 판매를 기록하며 2배의 성장을 기록한 반면 HTC는 540만대를 판매하는 데에 그쳤기 때문이다.

HTC는 그러나 올 3분기 판매량에 주목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2배 이상 증가한 65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존 왕 HTC 최고 마케팅 책임자(CMO)는 “우리는 리더 중 하나가 되고자 한다”고 향후 전망에 강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HTC는 ‘조용히 빛나는’이라는 기업 슬로건 아래 모든 이용자들의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휴대폰을 제작하고 있다.

또 애플이 온라인 스포트웨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반면 HTC는 통신업체가 음악과 어플리케

이션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HS 글로벌 인사이트의 월리스 존스 애널리스트는 “이는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애플과는 차별화된 포지셔닝이다”라고 평가했다.

HTC는 올해를 미국에서 출시한 4세대 무선 데이터 통신 기능의 ‘에보 4G’로 큰 인기를 얻었다. 이 휴대폰은 스프린트 넥스텔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존스는 “이 휴대폰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플이 여전히 위협적인 경쟁상대이며 삼성과 노키아 등 다른 글로벌 휴대폰 제조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점에서 HTC는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HTC는 경쟁업체들과 다른 차별화 전략과 제조업체 이상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광고 에이전시 오길비앤마더의 조셉 파이 회장은 “HTC는 좋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애플은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고안해 내고 있다”며 “HTC도 그들의 캐릭



대만 HTC는 3분기 스마트폰 판매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에보 4G 모델.

터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C는 현재 대만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서 이미지 확립을 위해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며 아시아보다 런던과 뉴욕 등에서 주요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존 왕 CMO는 “사람들은 소니를 일본 기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람들은 결국 HTC를 글로벌 브랜드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민태성의 글로벌포커스

허드와 신상훈

‘비용절감의 귀재’ ‘일종독자’ ‘위기의 기업을 살리는 해결사’

마크 허드 오라클 공동사장에 대한 글로벌 IT업계의 평가다. 허드는 1980년 현금지급기(ATM)로 유명한 NCR에 입사해 2003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랐다. 방만한 경영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던 NCR은 허드가 수장에 오르면서 기사화생에 나선다. 허드는 과감한 구조조정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적자 사업을 흑자로 돌려놨다.

허드의 CEO 재임 기간 NCR의 주가는 두 배 이상 급등했다. 허드는 2005년 휴렛패커드(HP)의 CEO로 자리를 옮긴다. 허드는 기업 모토를 ‘성장과 효율성 그리고 자본(Growth, Efficiency and Capital)’으로 잡았다.

IT계의 ‘여제’라는 평가를 받았던 칼리 피오리나의 뒤를 이어 HP의 키를 잡은 허드에 월가는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피오리나 전 CEO 시절 무리한 확장과 매출 부진에 지쳐있던 투자자들에게 허드는 ‘가뭄

의 단비’와 같은 존재였다.

2005년 20달러선에서 움직이던 HP의 주가는 지난 상반기 50달러 중반까지 올랐다.

허드의 업적이 무너진 것은 한순간이었다.

지난달 허드는 조디 피셔라는 마케팅 대행 계약업체 운영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낙마했다.

그런데 이게 의문투성이다. 아무리 매력적인 여성이라도 연봉으로 수백억원을 받는 허드가 피셔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 자금 2만달러(약 2400만원)를 유용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허드가 HP의 해고를 받아들이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문제는 허드가 택한 다음 행선지였다. 그는 HP에서 나온 지 한달이 안돼 오라클의 공동 사장에 취임했다. 유럽 금융권 위기가 재발하면서 7일(현지시간) 미국증시는 약세를 면치 못했지만 오라클의 주가는 5% 이상 올랐다. HP는 뒤늦게 대응에 나선다. 허드가 자사의 기업비

밀을 공개할 수 있다며 법원에 소장을 낸 것이다.

IT업계를 그 누구보다 꿰뚫고 있다는 허드가 낙마 후 경쟁사로 이동할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다.

HP의 대응이 졸렬하게 보이는 이유다. 한국에서는 신한금융지주가 난리다. 신상훈 사장의 부적절한 대출과 횡령 혐의로 검찰 고소까지 들어간 상태다. 허드 스캔들을 접하면서 신한금융 사태가 오버랩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수도 있겠다. 업종은 물론 사태 발생 배경과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영권을 둘러싼 임투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같다. 양사의 CEO가 저질렀다는 ‘범죄’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기업에서 CEO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신한금융지주가 HP처럼 능력있는 CEO를 잃고 나중에 후회할지 아니면 신 사장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고 라운한 회장이 회사의 미소를 지을지 두고 볼 일이다.

국제부장 tsmin@

日자동차업계 한파 몰려온다

‘에코카 보조금제’ 예산 바닥나 종료…대응책 마련 비상

일본 자동차 업계에 예상보다 일찍 한파가 몰려오고 있다.

9월말 종료 예정이던 ‘에코카 보조금제’가 예산이 바닥나면서 사실상 이미 종료됐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에코카 보조금’의 예산이 102억엔(약 1440억원) 남았다고 밝혔다. 6일 하루동안에만 116억엔, 9만6000대의 신청이 접수돼 예산이 단번에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산업성은 예산이 바닥난 시점에서 신청 접수를 종료할 방침이지만 가령 7일분의 신청이 총 102억엔을 초과할 경우 공평을 기하기 위해 6일까지의 접수로 신청을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월부터 접수받은 ‘에코카 보조금’은 총 5837억엔. 보조금 지급 기간인 작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신청판매 대수는 695만대였으며 이 가운데 보조금 지급 대상은 그 절반인 340만대로 집계됐다. 에코카 보조금제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과 내수 소비 촉진을 위해 시행해온 자동차 업계 지원책이었다. 에코카 보조금의 최대 수혜주는 도요타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 ‘프리우스’〈사진〉. 프리우스는 에



코카 보조금 제도 도입과 거의 같은 시기에 신차를 투입한 것이 성공으로 이어져 올해 8월까지 15개월 연속 일본 판매 1위를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엔화 강세로 자동차 업계에 암운이 드리워진 가운데 에코카 보조금제까지 막을 내리면서 각 메이커들은 망연자실이다.

혼다의 곤도 고이치 부사장은 “올해 일본 국내 신차 판매가 전년에 비해 30% 가량 줄어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실제로 도요타와 혼다는 10월부터 10~20% 가량의 생산 조정에 들어갈 계획을 밝혀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이토추상사의 조사정보부는 3분

기(10~12월) 일본 국내 판매가 연 환산하면 380만대 정도로, 전분기보다 35%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작년 같은 기간은 488만대였다. 각 자동차 메이커들은 에코카 보조금 지급 종료로 대응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혼다는 당초 올해 상반기 35만대, 하반기 30만대로 잡았으나 7월말에 상반기 판매는 36만대로 상향 수정하는 한편 하반기는 29만대로 줄였다. 도요타는 판매 부진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 딜러에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프리우스’ 모델 수를 늘리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亞 외환보유고 3400조 ‘사상최고’

한국·태국등 빠른 경제성장…중앙은행이 통화절상 막아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11개 국가의 외환보유고가 지난 8월 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빠른 경제발전과 통화 절상을 막기 위한 각국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아시아 11개국의 외환보유고가 8월말 기준 2조8750억달러(약 3388조원)로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고 다우존스 뉴스와이어 조사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유로화가 지난달 달러에 대해 2.8% 절하돼 각국이 보유고 있는 유로화 표시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가 증가한 것은 아시아 국가들이 달러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WSJ는 전했다. 한 외환트레이더는 “한국과 대만 및 싱가포르와 태국 등은 자국통화 가치의 급등에 따라 증가에 주에 막대한 양의 달러 자산을 매입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경제는 선진국으로의 수출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시아뿐 아니라 중남미 국가들의 외환보유고 규모도 경쟁성장에 힘입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브라질은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 9%를 기록한데 힘입어 지난 7월 외환보유고가 전년 동월 대비 21.4% 증가했고 멕시코도 같은 기간 외환보유고가 전년에 비해 44.5% 늘었다.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의 초저금리와 상대적으로 느린 경제발전속도로 인해 막대한 양의 자금이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경제발전 전망이 좋은 아시아와 중남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도 외환보유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베이루트 물가 중동지역 최고

중동 지역에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바논 3대 은행 중 하나인 바이블로스은행은 7일(현지시간) 베이루트가 올해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높은 도시 10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베이루트 아파트를 비롯해 교통비를 인공해 보도했다.

지난해 조사 때 28위를 기록했던 베이루트는 올해 18계단이나 뛰어오른 것이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방 2~3개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평균 임대료를 조사한 결과 베이루트가 가장 비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베이루트는 높은 물가로 프랑스 파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위스 제네바 등을 제쳤다. 세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비싼 도시 1위에는 일본 도쿄가 꼽혔다. 이밖에 싱가포르, 일본 오사카, 미국 뉴욕, 러시아 모스크바, 홍콩, 영국 런던 등이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높은 도시 10위권에 올랐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우리쌀로 빚은

우국새

글로벌 푸드 어워드 수상!

30일간 신선함을 유지하는 발효제어기술로 대한민국 식품사상 최초 수상

2010 IUFOST Global Food Award Product & Process Innovation 제품 및 공정 이노베이션 분야

*IUFOST Global Food Awards

글로벌 푸드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맛과 향은 물론 제품의 기술력을 중점 평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식품 과학자들의 학술회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ksdb.co.kr를 참조하세요

국순당 우리술강좌 운영

- 개설과정: 우리술첫걸음 과정(1일 특강) 우리술베틀기 과정(8주 과정, 주1회)
- (주)국순당 교육홈페이지 참조 www.woorisooledu.com

국순당 도매점 모집

- 모집분야: 주류 유통 및 판매 도매점
- 모집기간: 2010년 10월 31일까지
- (주)국순당 도매사업부 02-513-8621~4

경고: 지나친 음주는 건강이나 간임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리더십 부재 정국혼란·경제위기 불러

20년간 총리 14명, 5년간 총리 1인당 재임기간 평균 12개월 미만. 현재 일본 정치의 현주소다.

이름을 기억할만하면 바뀐다는 냉소가 나올 정도로 잦은 총리 교체는 일본의 국정 혼란은 물론 성장 동력을 잠먹고 있다.

일본의 총리는 일단 집권당 총수 자리에만 오르면 누구나 한 번씩 도전해보는 자리다. 그러나 1955년부터 54년간 자유민주당(자민당) 외에는 총리 자리를 넘볼 수 없었다.

우파 정당들이 모여 결성한 자민당이 집권한 이후 54년간 정권이 교체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1993년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이 붕괴된 후 연립정권이 성립된 적은 있지만 이는 정권 교체 차원의 아니었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자민당을 꺾고 역사적 정권 교체를 이룬 감회가 남달랐던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정 정당이 이처럼 장기 집권한다는 것은 보기 드문 일.

이는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배한 후 6년여 동안 연합군총사령부(GHQ)의 지배를 받은 영향이 컸다.

GHQ하에서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일본인들은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주권 의식이 열어 자민당의 장기 집권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

일본 국회에 세습 의원이 유난히 많은 것도 문제였다. 유권자들은 선대와 뜻을 같이하다 보니 선대들이 지지해온 세습의원에 이의 없이 표를 던져왔다. 이 때문에 일본 정치만큼 감동이 없는 정치도 드물다.

일본은 1996년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이후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에 이르기까지 8명 모두 정치 명문가 출신이다. 하토야마 직전의 아소 다로, 그 직전의 후쿠다 야스오와 아베 신조, 고이즈미 준이치로 모두 2~3세 출신이다.

1991년 미야자와 총리 때부터 계산하면 하토야마 총리까지 12명 중 무라야마 도미이치를 뺀 11명이 세습정치인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명문대 출신이거나 대기업 정부 관청 근무, 명문가 자녀와의 결혼, 선대의 선거구를 기반으로 의원 당선이라는 정해진 수순을 밟았다.

작년 여름 중의원 선거에서 부



일본의 최근 역대 총리. (위 왼쪽부터) 하토야마 유키오(93대), 아소 다로(92대), 후쿠다 야스오(91대), 아베 신조(90대), 고이즈미 준이치로(87~89대), 모리 요시로(85~86대).

최근 20년간 14명…평균 재임기간 1년 남짓 작년 정권교체 후에도 ‘후진정치’는 여전히 내일 ‘간 對 오자와’ 대표경선에 관심 쏠려

모나 친척의 지역구를 승계하거나 의원직을 이어받은 후보는 170명, 이중 87명이 당선돼 480명의 전체 의원 가운데 18.1%를 차지했다.

자민당 몰락의 복선을 그은 아소 다로의 경우, 그의 외조부인 요시다 시게루와 장인인 스즈키 젠코는 각각 45대, 70대 일본 총리를 지냈다.

아소 전 총리는 연이은 구설수로 총리 자질 문제가 불거지는데다 금융 위기로 인한 35년래 첫 마이너스 성장률로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자민당이 집권한지 54년 만에 정권을 아담에 내어주게 됐다.

일본의 ‘단명 총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990년 이후 20년간 13명의 총리가 평균 1년6개월의 임기를 넘기지 못했다.

일본의 총리가 이처럼 자주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

역대 총리의 개인적 한계도 있지만 일본의 후진적 정치 시스템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의원내각제이다 보니 국회(중의원)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에 오른다.

문제는 다수당 총재가 파벌의 논리로 정해진다. 점. 따라서 태생부터 정통성이 약하다 보니 쉽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또 일본은 ‘여론조사 정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요 언론사들이 한 달에 한번 실시하는 지지율 조사에 큰 영향을 받는다.

무엇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없는 것이 최근 단명 총리 현상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총리는 대부분이 전직 총리가 물려 사임을 발표하지 며칠 만에 새 총리로 뽑힌 경우가 대부분.

짧은 기간에 새 총리를 뽑다 보니 사전 검증은 꿈도 못 꾸는데다 총리 본인의 정권 인수 준비시간도 녹록치 않다.

1년간의 예비선거나 당내 경선을 통해 철저히 검증을 받은 뒤 대통령에 선출되고 2개월간의 정권 인수준비를 거쳐 취임하는 미국의 대통령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런 구도에 염증을 느낀 일본 유권자들의 대반란이 2009년 8월

연대	총리	취임일	재임일수
94대	간 나오토	2010. 6. 8.	
93대	하토야마 유키오	2009. 9. 16.	266
92대	아소 다로	2008. 9. 24.	358
91대	후쿠다 야스오	2007. 9. 26.	365
90대	아베 신조	2006. 9. 26.	366
89대	고이즈미 준이치로	2005. 9. 21.	371
88대	고이즈미 준이치로	2003. 11. 19.	673
87대	고이즈미 준이치로	2001. 4. 26.	938
86대	모리 요시로	2000. 7. 4.	297
85대	모리 요시로	2000. 4. 5.	91
84대	오부치 게이조	1998. 7. 30.	616
83대	하시모토 류타로	1996. 11. 7.	631
82대	하시모토 류타로	1996. 1. 11.	302
81대	무라야마 도미이치	1994. 6. 30.	561
80대	하타 쓰토무	1994. 4. 28.	64
79대	호소카와 모리히로	1993. 8. 9.	263
78대	미야자와 기이치	1991. 11. 5.	644
77대	가이후 도시키	1990. 2. 28.	616
76대	가이후 도시키	1989. 8. 10.	203

30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시선은 또다시 오는 9월 14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쏠리고 있다.

이번에는 오자와 이치로 새 총리가 탄생할 것인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후퇴하는 가운데 정국 혼란을 초래하며 국가 전반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리더 교체가 달가울 리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총리 바뀔 때마다 새정책 국민 혼란

FT, 일본정계 ‘워홀식 정치’ 분석

미국 팝 아트의 선구자로 불리는 앤디 워홀은 “누구나 15분 간은 유명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워홀의 이 말을 일본 정계에 빗대, 누구나 총리가 될 수 있는 ‘워홀식 정치’가 다양한 측면에서 일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최근 지적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20년간 14명의 총리를 배출했다.

이는 같은 시기 이탈리아 총리 수의 2배에 달한다.

더구나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퇴임한 이후의 재임기간은 1인당 평균 12개월도 안 된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의 재임기간은 262일, 현재 취임 4개월째에 접어든 간 나오토 총리 역시 오는 14일 운명의 날을 앞두고 있다.

14일 치러지는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간 총리가 패할 경우

워홀이 말한 ‘15분’은 오자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FT는 이 같은 워홀식 정치가 다양한 이유에서 일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리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방향이 발표된다. 민주당의 경우 1년 전 집권 당시, 감세와 자녀수당을 통한 성장을 목표로

결집률이 된다는 이야기다.

FT는 또 세탁기처럼 어지럽게 회전하는 정치가 관료주의로의 회귀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내비쳤다.

FT는 또 일본의 워홀식 정치가 일본의 동맹국들까지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오키나와 미군 기지 이전을 놓고 일본 정부와 협상을 해왔지만 여전히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총리가 바뀔 때마다 상황은

원점으로 되돌

아가 열린 논

쟁만 10년 이

상 계속해왔다.

FT는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것은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자신이 2인자라는데 만족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역설했다.

FT는 지도자에 대한 신뢰 부재가 조직을 크게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방향감각을 깨닫고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정치가 들은 끝이 없는 공회전만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잠들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 동부익스프레스는 늘 깨어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종합물류기업-동부익스프레스

물류가 멈추면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도 멈춥니다.

밤이나 낮이나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전 세계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실어 나르는 종합물류기업, 동부익스프레스!

최고의 물류전문가들이 세계 속의 경제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깨어있습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8월 지표 개선 ‘한숨’ 돌렸지만...

미국 고용시장은 회복하고 있을까. 지난 3일(현지시간) 발표된 8월 미국 고용보고서는 얼어붙은 현재 고용시장에 희망하거나 개선의 여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8월 민간부문 고용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웃돌았고 미 노동부는 7월 민간부문 고용을 당초 7만1000명에서 10만7000명으로 상향 수정했다. 8월 실업률은 9.6%로 전달의 9.5%에서 0.1%포인트 상승해 노동력 인구가 증가했음을 반영했다.

그러나 8월 고용보고서와 관련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을 이해하는 것과 지표 산출 방법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매월 표제에 오르는 고용 수치가 잘못된 통계를 보여주기도 한다고 US뉴스가 지표 결과를 최근 분석했다.

8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는 5만4000명 감소했지만 자세히 보면 8월은 국제조사 종료로 정부가 11만4000명의 임시직 고용을 중단한 반면 오히려 같은 기간 민간부문 고용자수는 전월 대비 6만7000명이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US뉴스는 민간부문 고용은 정부의 단기고용을 제외한 실제 고용지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느냐 스스로 떠났느냐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를 ‘이탈(churn)’이라 부른다.

장기 실업자가 ‘이탈’에서 누락된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달 미국에서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는 6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일 수백만 명의 고용이 이뤄지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장기 실업에 직면해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탈’이 발생하는 몇 가지 원인은 다음과 같다. US뉴스에 따르면 장기 실업에 직면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맞지 않는 일자리를 구해왔다. 이 때문에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쉽게 포기한다는 것.

또 장기 실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주위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지만 일자리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점차 구직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다.

정책적인 이유로는 고용주에 대한 세액공제를 들 수 있다. 미 정부는 6개월 이상의 실직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세액을 공제해준다. 따라

적했다. US뉴스는 경제가 성장 궤도에 오르려면 매월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추가 경기부양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성원 교수는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경기 부양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중소기업에 신규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근로소득세 감감 등을 제안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8월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 중소기업과 주택시장 지원책을 마련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통계에서 누락되는 자발적 실업 지표 산출방법 등 평가 엇갈려 경기부양 프로그램 지속할 듯

서 세계 혜택을 받기 위해 ‘이탈’이 발생해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이야기다.

실업을 상승은 실제로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다고 US뉴스는 전했다. 이것이 터무니없이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이며 경기회복 조짐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미 실업률은 9.6%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모건스탠리의 테드 와이즈먼과 데이비드 그린로우 2명의 이코노미스트는 “실업을 통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며 “가계 조사에서는 8월에 일자리가 29만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



8월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호전됐지만 시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분분하다. 사진은 뉴욕의 실업자들이 구직 신청을 하기 위해 줄서 있는 모습.

실업률 고공행진 멈춰질까

미국 일부 기업들이 고용에 돌입했지만 실업률은 고공행진을 멈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민간부문고용이 6만7000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9.6%로 전월 9.5%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한 것.

이는 구직자수 증가에 비해 일자리가 확연히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AP통신이 최근 분

노동부에 따르면 15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 상태로 경제성장 둔화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연방 정부 임시직인 인구 센서스 조사원 11만4000명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비농업부문에서의 일자리 수는 5만4000개 줄었다.

내년까지 고용시장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업률은 향후 수개월간 9%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는 민주당의 경제 현안 처리 능력에 대한 중간 심판의 성격으로 민주당이 하원에서 상당수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고용

구직자 일자리 턱없이 부족 전문가들 “당분간 9%대 유지” 중간선거 앞둔 민주당 악재로

전문가들은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메시로우파이낸셜의 다이앤 스윈크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예상치를 웃도는 민간부문 고용 증가 소식으로 미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우려를 완화시켰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민간고용이 증가하긴 했지만 지난 몇달 동안 일자리 창출 부진으로 고실업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민간부문고용은 지난 3개월간 매달 평균 7만8000명 증가에 그쳤다.

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서 매달 2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서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 중산층에 대한 조치 W 부시 전 행정부의 감세 조치 연장과 중소기업들의 대출제 공 증가와 감세 법안 통과를 의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공화당은 부유층을 포함한 전체 미국민에 대한 감세 정책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지난달 전체 실업자수는 1490만명에 도달했다. 정규직을 선호하는 계약직과 공직을 포기한 자들을 포함할 경우 2620만명이 실업자인 셈이다. 지난달 실질 실업률은 전월의 16.5%에서 0.2%포인트 늘어난 16.7%를 기록했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中企 자금지원 · 공공 일자리 풀어야”

24/7 월스트리트닷컴, 실업률 낮출 10가지 해법 소개

미국의 실업률이 지난해 10월 10.1%로 25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후 여전히 10%선에 육박하며 개선되지 않는 등 고용시장의 회복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미 금융전문사이트 24/7 월스트리트닷컴은 최근 세계은행 및 임금 인하와 중소기업 육성 등 현재 미국의 실업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세계은행은 실업률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다.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비용절감 등 이유로 기업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중앙정부가 기업들의 신규 고용 및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세공혜택을 제공하면 기업의 고용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

공황이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1935년 설치한 공공근로청은 거의 80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공공근로청의 프로젝트는 처음 3년간 오늘날의 수백억달러에 달하는 70억달러의 비용을 소모했지만 이를 통해 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실업자 지원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고 경제회복에도 큰 도움이 됐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용시장 개선이 실업자 직접 지원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정부의 첫번째 경기부양책은 8000억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일자리 창출보다는 세계 인센티브 등 간접적 수단에 치우쳤다.

게다가 첫번째 경기부양책은 당장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산업 등

美 실업률 절반으로 낮추기 위한 10가지 해법

1. 세계은행을 통해 기업 고용에 실질적 이득 줄 것
2.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해고를 줄일 것
3. 중소기업 고용 장려
4.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5. 경기부양책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
6. 중국의 위안 절상 유도
7. 수출 부양 위해 운송비용 절감 등 대책 마련
8. 최저임금 보정제 시행
9. 건설산업을 육성할 것
10. 불법이민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책 마련

일부 부문에만 집중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실패했다.

중국의 인위적인 환율왜곡은 무역불균형을 심화시켜 미국의 경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 및 관세부과 등 위안 절상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24/7 월스트리트는 전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간호사 · 데이터 애널리스트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포춘이 꼽은 미래 유망 6가지 직업

전세계적인 고용대란에도 불구하고 잘나가는 직종은 있다. 이들 직업의 공통점은 대부분 전문직으로 기술 발전이나 사회적 배경에 힘입어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미 경제 전문지 포춘은 최신호를 통해 미 노동 통계국(BLS)의 조사를 인용, 빠른 성장이 돋보이는 6개의 직업을 보도했다.

BLS에 따르면 전문직 간호사 종사자가 현재 260만명을 기록하는 가운데 2018년 약 320만명까지 팽창할 전망이다.

이로써 58만1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모는 미국 내 전체 일자리에서 가장 큰

美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 베스트6

01. 간호사
02. 네트워크 시스템 및 데이터 애널리스트
03.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04.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
05. 회계사 및 회계 감사원
06. 수의사

성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미국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지난 2000년 12.4%에서 2030년 19%로 증가하는 것과 맞물리는 성장이다.

BLS가 선정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다른 직업은 네트워크 시스템 및 데이터 애널리스트.

이 직업은 시스템 디자인과 설계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직업으로 BLS는 최근 고용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이 직업 종사자가 53.4% 증가한 44만8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역시 성장 전망도가 높은 직업으로 꼽혔다. BLS는 네트워크와 데이터 구축을 위해 거의 전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야가 2018년까지 68만9900명으로 팽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에 따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필요성도 증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건강 100세를 실현하는
ILDONG 일동제약

건강 100세를 실현하는
ILDONG 일동제약

을 추석에도, 건강보다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국민영양제 아로나민! 알고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좋은 성분과 탁월한 효과로 40년간 사랑받아온 아로나민.
이제, 증상에 맞게 보다 전문화 된 4가지 아로나민으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누리십시오.

피로, 육체피로, 신경통에-



활성비타민 피로회복제
아로나민골드에 들어 있는 활성비타민B₁, B₂, B₆와 비타민C-E는 근육과 신경에 쌓인 피로물질
젖산을 분해하여 피로를 잘 풀어주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주어 활력을 높여줍니다.
효능효과 : 피로, 신경통, 관절통, 병중·병후 체력저하시 (하루 2정 복용)
주요성분 : 활성비타민B₁, B₂, B₆, B₁₂, 비타민C-E

피로, 피부건강에-



비타민C (1200mg), E, 아연, 셀레늄 등 항산화제 보강
아로나민 씨플러스에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며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항산화제 비타민C-E, 아연, 셀레늄 등이 들어있어 건강을 지켜주고 피부에 생기를 줍니다.
효능효과 : 육체피로, 기미·주근깨, 눈의 피로, 신경통, 관절통 (하루 2정 / 아침, 저녁 복용)
주요성분 : 비타민C-E, 아연, 셀레늄, 철분, 활성비타민B₁, B₂, B₆, B₁₂, E, 엽산, 비오틴

눈의 피로, 안구 건조증에-



비타민A 보강
아로나민아이에는 하루 10만번 이상 운동을 하는 모야체근의 피로를 풀어주는
활성비타민B군에 눈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비타민A, 눈의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셀레늄, 아연, 비타민C-E)이 들어 있습니다.
효능효과 : 눈의 보호 및 기능개선, 안구건조증 완화 (하루 2정 복용)
주요성분 : 비타민A, 활성비타민B₁, B₂, B₆, B₁₂, E, 아연, 셀레늄, 당간

혈액순환장애, 갱년기 어깨·목결림에-



고함량 비타민B군
갱년기엔 신체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기 때문에 혈류개선, 에너지대사, 항산화작용, 신경기능
개선이 더욱 필요해집니다. 아로나민EX는 활성비타민B군과 엽산, 비타민E, γ-오리자놀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각종 대사를 촉진하여 육체피로, 신경피로를 풀어줍니다.
효능효과 : 말초혈행장애 및 갱년기 어깨·목결림, 신경통, 관절통, 근육통, 수족저림,
수족냉증, 육체피로, 눈의 피로 (하루 2정 복용)
주요성분 : 활성비타민B₁, B₂, B₆, B₁₂, E, 엽산, γ-오리자놀

주식담보대출 임의처분 못한다

금감원, 저축은행 등 연계신용 투자자 보호 개선
반대매매 땀 개별동의 받고 필요수량만 팔아야

앞으로 저축은행 등은 연계신용 이용자의 보유종목에 대해 반대매매를 임의대로 하지 못한다. 연계신용서비스란 증권회사와 저축은행 등 간 업무제휴를 통해 저축은행 등이 증권회사 고객에게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하고 증권회사는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담보를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저축은행 등 연계신용' 관련 투자자보호

개선안을 마련, 관행상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반대매매 관련 문제점을 시정토록 했다. 우선 투자 위험성이 과도하거나 담보평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저축은행 등 대출자 임의로 반대매매해 왔던 것을 개별적인 동의를 얻도록 했다. 특히 계약서에 반대매매 사유별 내용에 대해 '관리·거래정지 종목 편입시 매도' 등의 항목을 체크하

거나 직접 기입하는 형태로 구체적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반대매매 사유발생시 익일에 즉시 전량 반대매매된 것을 시장개시 동시호가에 담보부족분 해소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처분토록 개선했다. 추가변동으로 장중에 최저담보 유지비를 미달시 담보충당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실시간 매도하던 반대매매절차를 개선,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 추가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만 실행토록 최고절차를 도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계신용서비스 이용고객은 증권회사 신용고

증권사 객장 '무한변신'

카페·갤러리 탈바꿈... 강남지역에 집중 비난도



카페형 갤러리로 탈바꿈한 신영증권 압구정지점 내부.

로 운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라는 평가를 얻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소위 큰손 고객들이 밀집한 강남 지역에 속한 지점에만 국한돼 있고 전체 지점수와 비교하면 극히 적은 숫자를 들면서 정보의 비대칭을 초래하는 등 증권업계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추석맞은 유통·여행株, 보름달 두둥실 뜰까

경기회복에 연휴 호재... '상반기 많이 올랐다' 지적도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면서 추석 수혜주인 여행 관련주와 유통관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통주들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서는 환율급등과 주식시장 급락세,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위축 우려 등으로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 추석연휴는 지난 해와 달리 최대 9일의 '황금연휴'

여서 '추석 효과'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시전문가들은 이같은 유통주들의 상승세에 대해 추세적으로 계속 오를 수 있다는 의견과 생각보다 추석 수혜는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차제현 동부증권 연구원은 "중국 소비 시장과 관련된 종목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에서 중국 할인점 시장 등에 진출해 있는 국내 유통주들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비록 계절성이 있긴 하지만 유통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추석 특수가 유통업체들의 실적 호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소용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도 분명히 추석 시즌에 유통업체들의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과 비교해 매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다"며 "이미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증권업계에서는 유통 관련주를 보다는 여행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긴 연휴 덕분에 예약률이 치솟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모두투어와 하나투어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외여행 상품 예약자는 각각 1만5000명과 9500명 수준인데, 이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2007년의 4배 수준이다. 추가적인 측면에서도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9월 들어서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문지현 대우증권 연구원은 "모두투어와 하나투어는 작년 연말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실적이 개선됐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2006년 이래 가장 길기 때문에 실적 개선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현 nls0118@

연예인 주식부자 1위 '이수만 회장'

SM 491만주 843억... 배용준·양수경 뒤이어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이 연예인 주식부자 1위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한류 스타 윤사마 배용준 씨가 뒤를 이었으며 가수 정지훈(예명 비) 씨가 빠진 자리에는 가수 양수경 씨가 3위를 차지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 그룹의 대주주로 있는 이수만 회장은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 491만 6465주, 29.58%(5월 17일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7일 종가(1만705원)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이수만 회장은 843억원다. 불과 두달전에 600억원대 에서 200억원 규모로 줄어났다. 이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증권업계에서는 에스엠이 실적 호전 및 일본 엔화 상승에 따른 수혜 등을 입어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며 당분간 이수만 회장은 연예인 주식부자 부동의 1위를 지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다음으로는 윤사마 배용준 씨다. 배용준 등 2인은 키이스트 주식 464만421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배용준 소유 지분은 34.64%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이수만



배용준

136억원 규모다. 올해 들어 키이스트의 주가가 하락하며 지분가치가 연초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키이스트는 설립 이래 현재까지 '한국통신→오로윈테크→키이스트'로 상호가 변경됐으며 '김형식→(주)우리기술→배용준'으로 최대주주 변동되기도 했다. 뒤를 이어 변두섭 예당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부인인 양씨는 지난 6월 이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384만여주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2대주주(지분율 5.40%)가 됐으며 이날 양씨의 지분가치는 54억6000만원을 기록해 연예인 주식부자 3위에 올랐다. 견미리 씨도 1개월여 만에 5

배의 '수퍼 대박'을 터트리며 4위로 올라섰다. 견씨는 지난 7월 FCB투벨브의 유상증자에 5만5000여주의 주식을 취득해 이날 보유주식 가치는 45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견씨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가격이 주당 1만6200원에 총 9억원을 투자했고 이날 주가가 8만2700원으로 급등해 5배의 수익률을 올렸다. 이밖에 제이투엔터테인먼트의 지분 8.04%를 보유한 가수 비(본명 정지훈)씨가 41억6000만원으로 5위를 기록했고 디초콜릿의 지분을 보유한 신동엽 씨와 강호동씨는 각각 14억6000만원과 1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강재용 기자 manrikang@

거래소 새 캐릭터 '황비' '웅비' 확정



웅비(熊飛)

황비(黃飛)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의 상징인 황소와 곰을 이용한 한국거래소의 대표 캐릭터를 개발하고 명칭을 '황비'(黃飛)와 '웅비'(熊飛)로 확정했다. 황비는 상승장을 상징하는 황소와 주가의 상승을 기원하는 뜻이다. 웅비는 하락장을 상징하는 곰과 하락장이 상승장으로 바뀌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명칭이 정해졌다. 캐릭터의 해외사용시에는 그리스 신화의 황소자리(Taurus)와 큰곰자리(Callisto)에서 따온 타우(Tau)와 칼리(Cally)를 사용한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적발

금감원 실태점검... 27개 업체 폐쇄요청

정부의 허가도 받지 않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불법 FX(외환선물)마진거래 온라인 사이트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사이버공간에서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음성적으로 성행하는 FX마진거래와 코스피지수 선물거래를 지난 7월부터 8월 초까지 실태점검한 결과 무인가 선물업을 한 혐의가 있는 2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FX마진거래는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환율 변동성이 높은 국가의 통화를 매매해 수익을 추구하는 거래다. 이들 업체는 '최고 100배의 레버리지 외환거래' '50만원만 있으면 코스피지수 선물거래 가능' 등을 내걸고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나

타했다. 유형별로 △무인가 해외선물업자가 국내 투자자를 직접 유치한 사례 △무인가 국내의 업체가 해외선물업자와의 불법거래를 주선한 사례 △무인가 선물업자가 불법 코스피지수 선물거래를 증정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선물사를 통한 FX 마진거래는 20배지만 해당업체는 투기성을 5배가 상향시켜 100배의 레버리지로 거래할 수 있다거나, 최소 1500만원 이상이 필요한 증거금의 30분의 1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비용의 10% 환급해 준 다면서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통보하고 해당 사이트 폐쇄 요청을 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왜요, 아파트 파시게요?”

아 무 도 모 르 는 하 우 스 푸 어 의 불 편 한 진 실 !

공포의 덮을 피해 시장을 이기는 하우스 푸어 탈출전략 필살기!

하우스 푸어에서 살아남는 법

“지금까지 하우스 푸어에 대한 실상과 생존전략에 대해 이 책의 저자만큼 심도 있게 파고들었던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질병에 걸린 사람을 두고 뒤에서 비난하고 조롱만 하는 의사를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효과 있는 치료약을 처방해주는 의사를 신뢰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독자들에게 달려있다”

— 전성규, (부동산 전문가 멤버십) 대표위원, 신화세법연구소장

김부성 지음 | 288쪽 | 정가:13,000원

네이버 No.1 주식카페 '스타시티' 매니저 이진욱, 슈퍼개미의 주식투자 노하우!

“왜 남이 사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질까?”

주식투자 독하게 하라

주식의 기초를 바로 알고, 독하게 주식투자 하자!

기업을 제대로 분석하고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은 몇이 나 될까? 미르북스에서 출간한 『주식투자 독하게 하라』는 주식공부가 어려워 '물지마 투자'를 하는 초보자들의 눈에 맞춘 주식투자 입문서로 그동안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답답해하던 독자들에게 밝은 투자의 길을 안내할 것이다.

이진욱 지음 | 290쪽 | 정가:15,000원

서점 할인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천만의 말씀 인터넷도 사는 다름니다.

최저가가 아니면 1 상품별 200%보상

내가 살 책 클릭 한번이면 2 최저가로 즉시반경

사물/수도권은 기본 3 부스까지 당일배송

인터파크 도서

인터넷서점 어디를 둘러 봐도 이보다 더 할 수는 없잖아

도서/음반/DVD 베스트셀러

10,000종 할인!

최저가 할인!

클릭 한 번이면 책 값이 최저가로 즉시 변경 그것도 모자라서 쿠폰에 도서상품권까지! 살람 살람 불어맘 타고, 자꾸만 내려가는 책 값 인터넷 파도 되는 거...

구매금액대별 할인쿠폰 증정

2,000원 이상 3,000원 이상 7,000원 이상

도서/음반/DVD 구매시 사물 가능! 인터넷서점 할인쿠폰 증정

INTERPARK Book

3D·스마트... ‘속살’ 드러낸 미래기술

IT 결합 차세대 TV제품 대거 공개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인 'IFA 2010'이 6일간의 열전을 위로 하고 막을 내렸다. 이번 전시회는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파나소닉 등 글로벌 기업들이 저마다의 기술력을 한껏 뽐내면서 '3D'와 '스마트'로 압축된 이번 전시회 기간 내내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이번 전시회의 화두는 단연 '3D TV'와 '인터넷 TV'. 이 가운데 3D의 경우 TV뿐만 아니라 노트북, 캠코더 등까지 제품군이 확대됐으며, 주요 가전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향후 세계 TV 시장의 주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터넷 TV 시장의 경우에도 삼성, LG, 소니 등 TV업계 선두기업들이 저마다의 기술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IFA 전시제품의 주류인 TV 디자인의 경우에도 블랙 위주의 제품에서 메탈소재를 이용한 실버컬러 사용의 확대가 눈에 띄었다.

또한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두께 8.8mm의 LED 제품을 선보이는 등 가전업체의 두께 경쟁도 치열

하게 전개됐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태블릿 PC. 삼성전자는 전시회 공식개막일에 하루 앞선 지난 2일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 신개념 스마트 태블릿 PC인 '갤럭시 탭'을 최초 공개, 전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관람객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TV 관련 전시의 절반 가량은 3D TV가 차지했다.

전세계 3D TV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삼성 태블릿PC '갤럭시탭' 시선 집중 기대모았던 소니 '인터넷TV'엔 실망감

세계 최대 크기인 65인치 풀HD 3D LED TV와 72인치 초대형 3D LED TV를 선보이면서 3D TV 시장의 대형화 추세가 이뤄질 것을 예고했다. 윤부근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장은 전시회 기간 중 기자와 만나 "3D TV 시장에서 대형화는 필수"라며 65인치



관람객들의 최대 관심사는 차세대 TV인 스마트 TV였다.

삼성전자는 TV용 애플리케이션 '삼성엡스'를 공격적으로 선보였고, LG전자도 자체 플랫폼인 '넷캐스트'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TV를 공개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여기에 소니도 구글, 인텔, 로지텍 등 글로벌 IT관련 기업들과 함께 만드는 인터넷TV 시제품을 공개하면서 과거 전자제품 제왕의 자리 복귀 가능성을 타진하고 나섰다.

올해 IFA에서 가장 공급증을 불러 일으켰던 곳은 단연 소니. 구글, 인텔, 로지텍 등 IT업계의 공룡들과 제휴를 통해 스마트 TV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과 LG 관계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전시회 개막을 기다렸지만 결론은 '실망'에 가까웠다.

소니 전시관 내에 매우 협소하게 자리 잡은 스마트TV 전시공간에서는 어떠한 시현도 해볼 수 없었으며, 소니의 스마트 TV가 어떻게 작동한다는 데모 동영상만 반복해서 상영될 뿐이었다.

지난 3~8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2010'에서 관람객들이 삼성전자의 3D TV를 체험해보고 있다.

소니코리아 관계자는 "올 가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구글, 인텔 등 제휴업체와 함께 소니의 스마트 TV를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 최고의 관심사 중 하나는 애플의 아이패드의 대항마로 꼽히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태블릿 PC인 '갤럭시 탭'이 베일을 벗은 점이다.

전시회 공식 개막일에 앞선 지난 2일 삼성전자는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고 7인치의 대형화면과 380g의 초경량 무게로 이뤄진 '갤럭시 탭'을 공개했다.

신종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은 "갤럭시 탭을 제작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휴대편의성"이라며 "남성의 양복 안주머니, 여성의 핸드백에도 들어갈만큼 휴대성을 극대화했다"고 말했다.

베를린=박철근 기자 ckpark@



LG전자가 지난 3~8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인 'IFA 2010'에서 전시장 앞 호텔 외벽에 대형 '인피니아 풀LED 3D TV' 옥외광고를 설치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삼성·LG ‘글로벌 1위’ 도약 선언

베를린 현지서 TV·생활가전 해외 사업계획 밝혀

전자업계 맞수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 TV를 포함한 TV부문과 세탁기·냉장고 등 생활가전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폐막한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인 IFA2010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주요사업인 TV사업과 생활가전사업부문의 선두 지위를 공고화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생활가전사업과 TV 사업에서 도약을 다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스마트TV 시장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윤부근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사장은 2일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LED TV, 3D TV에 이어 스마트TV 시장에서 50%이상의 점유율을 달성하면서 5년 연속 TV시장 1위라는 기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스마트 TV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폰과 스마트 TV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도 검토 중이다.

공교롭게도 LG전자는 삼성전자와 반대되는 상황이다. 이영하 LG전자 HA사업본부 사장은 지난 1일 "오는 2014년 가전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올

해 12%에 이어 내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1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LG전자 가전부문 전략 시장인 유럽에서 2012년까지 냉장고 1위, 프리미엄 세탁기 시장에서 3위를 달성, 세계시장석권을 위해 초석을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강신익 HE사업본부 사장은 내년에도 평판 TV 4000만대를 판매, 시장의 리더십 지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만년 2등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업계로 선도한다는 전략 아래 이번 전시회에서 세계최초로 8.8mm의 풀 나노LED TV를 전시하는 등 기술력에서 우위를 입증키도 했다.

베를린=박철근 기자 ckpark@

친환경 비데·전자책 리더기 ‘작지만 빛났다’

웅진코웨이·아이리버 유럽시장 노크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주된 관심을 받는 IFA2010에서 작지만 묵묵하게 유럽시장을 노크한 국내기업들도 눈에 띄었다.

그 주인공은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로 널리 알려진 웅진코웨이(해외법인명 '코웨이')와 MP3플레이어 등으로 명성을 쌓은 아이리버.

웅진코웨이는 주요 아이টে인 공기청정기를 비롯해 정수기와 비데 등 친환경 생활가전으로 유럽시장 공략에 나섰다. 특히 올해 전시회 주요 트렌드 중 하나인 '친환경' 콘셉트에 맞게 자가발전으로 작동하는 무전력 비데(사진)와 전력 소모량을 최소화한 초슬림 공기청정기 등을 선보였다.

홍준기 사장은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고 생활수준이 높은 유럽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환경가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코웨이를 글로벌 중합 환경가전 브랜드로 키워 향후 2~3년 내에 환경가전 분야 시장 1위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MP3 플레이어 시장의 '뽕주'로 군림했던 아이리버도 전자책 리더기로 태블릿 PC와의 차별화를 추구, 유럽시장진출을 위해 이번 전시회에 참여했다.



웅진코웨이는 IFA 2010에 참가해 무전기 비데를 선보이면서 유럽 친환경 가전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재우 아이리버 대표는 "태블릿 PC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훨씬 저렴한 전자책 리더기 시장도 존재한다"며 "태블릿 PC는 눈의 피로도나 배터리 사용시간 등에서 전자책 리더기를 따라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LG디스플레이와 조인트벤처를 설립, 가격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럽공략을 위한 경쟁력을 갖춰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베를린=박철근 기자 ckpark@

LG ‘파트너십’ 상생경영 나선다

2000여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체결
그린사업 분야 중소기업도 선정 지원

LG그룹이 협력회사와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파트너십 상생경영’을 추진한다.

LG는 9월 양재동 LG전자 서초 R&D캠퍼스에서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등 9개 주요 계열사와 100여개의 협력회사가 참석한 가운데 ‘LG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LG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2000여개 협력회사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난 8월초 발표한 그룹 차원의 ‘상생협력 5대 전략과제’를 분야별로 나눠 ‘파트너십 상생경영’으로 실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협력회사와 R&D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키로 하고, 미래성장엔진으로 적극 추진중인 그린 신사업 분야에서 동반 성장할 중소기업 선정에 나선다.

10월부터 계열사별로 태양전지, LED, 헬스케어, 스마트그리드, 전기가 배터리 사업 등의 차세대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할 중소기업 추천을 시작해, 12월 초 중소기업을 선발해 그린 신사업 연구개발에 활용하도록 2011년부터 5년간 1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단행할 예정이다

LG는 협력회사와 장비국산화 분

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통한 생산장비 및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본격 시작했다.

LG이노텍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LED 증착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중소기업 2곳과 손잡고 공동개발에 들어갔으며, 내년말까지 국산화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LED 증착장비는 웨이퍼에 화학 유기를 입히는 장비로 LED 생산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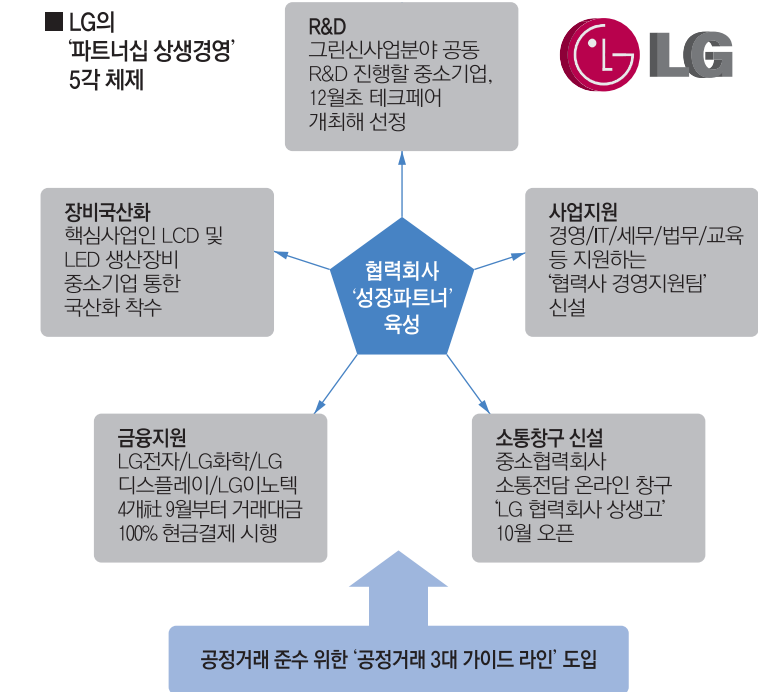
LG디스플레이는 LCD생산라인 장비 국산화 비율을 현재 60%대에서 차기 생산라인 건설시에는 80%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협력회사가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확보해 글로벌 수준의 업체로 성장하도록 인사·노무·영업 등의 전반적인 경영역량을 높여주는 사업지원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방침이다.

LG디스플레이는 기존의 협력회사 생산·개발·품질 등을 지원하는 조직과 함께 경영·IT·세무·법무·교육 등을 전담 지원하는 ‘협력사 경영지원팀’을 신설했다.

LG그룹은 이와 함께 자금지원을 결제조건을 개선해 협력회사에 대한 금융지원 파트너십을 확대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LG전자·LG화학·LG



디스플레이·LG이노텍 등 4개사가 100% 현금결제를 시행키로 했으며, 이들 4개사의 올해 협력사 거래대금은 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현금 지급기일도 단축한다. LG화학의 경우 이달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기준을 7일 이내로 변경했으며, LG이노텍은 결제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LG 관계자는 “이를 통해 1차 협력회사가 2차 협력회사에 현금결제 비율을 확대하도록 유도, 2·3차 협력회사에 대한 간접적인 자

금지원 효과도 거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8월부터는 2·3차 협력회사까지도 자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연간 2500억원 규모의 ‘LG 상생협력펀드’의 대출을 시작했다.

이외에도 700억원 규모의 직접대출과 네트워크론, 패밀론 등 3700억원 규모의 금융기관 연계 간접대출 등 총 7400억원 규모의 협력회사 자금지원을 계열사별로 적극 집행할 것이라고 그룹측은 전했다.

박철근 기자 ckpark@

‘갤럭시 S’ 중국서 흥행 잇는다 3대 통신 사업자 통해 3G방식 출시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휴대폰 시장이자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중국 대륙에 상륙했다.

삼성전자는 8일 오후 중국 베이징 국제무역센터전시관에서 ‘갤럭시 S’ 런칭 행사를 열고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등 중국 3대 통신 사업자를 통해 ‘갤럭시 S’를 출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무선사업부장 신종균 사장, 중국본사 박근희 사장을 비롯해 글로벌 미디어, 협력사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잠재수요가 큰 중국 시장 갤럭시 출시를 통해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갤럭시 S 흥행 물풍을 이끌어 내 스마트폰 선두 브랜드로서 위상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중국 런칭의 경우 이례적으로 3대 주요 통신사업자에 모두 출시하면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갤럭시S에 대한 높은 관심과 위상을 입증했다.

차이나 텔레콤은 CDMA2000, 차이나 모바일은 TD-SCDMA, 차이나 유니콤 WCDMA 방식으로 출시하는데, 단일 모델로 주요 3개 사업자가 3G 방식으로 출시되는 것은 갤럭시 S가 처음이다.

특히 차이나 텔레콤 버전의 갤럭시 S는 CDMA와 GSM을 동시에 지원하는 듀얼 스탠바이폰이며 차이나 모바일 버전은 중국 모바일 방송 서비스인 CMMB기능을 지원하며 자체 개발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Ophone 2.0 플랫폼을 탑재했다.



소비자들의 편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원하며 일부 사업자에게 삼성앱스를 통해 중국어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신종균 사장은 “갤럭시 S를 중국 3대 통신사업자를 통해 동시에 출시해 중국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저가항공 ‘동남아 잡아라’

뚜렷한 실적 개선을 보이고 있는 저가항공사들이 국제선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저가항공사 4개사는 하반기에도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국제선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가항공사들의 국내선 수송분담률은 지난해 27%에서 올해 30%를 넘어섰으며 상반기 실적 역시 여객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4개사 중 2개사가 영업이익을 올리는 등 뚜렷한 개선을 보였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저가항공사들의 기반이 안정화되면서 수익성이 높은 단거리 국제선 확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심홍수 기자 shs@

이통사 무선데이터 시장 놓고 ‘한판’

SKT-KT ‘무제한 서비스’ 격돌...LG U+도 도입 검토

이동통신 3사가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한 전략으로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6일부터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시행, 지난 4일 기준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이용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SK텔레콤은 “올인원 요금제 순조 가입고객 중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올인원55(5만5000원)’ 이상을 선택한 비중은 91%에 달했고 스마트폰 신규 가입고객 중에는 70% 이상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달 말께 SK텔레콤을 통해 출시될 예정인 삼성전자 갤럭시S 등 향후 다양한 태블릿PC의 출시도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효과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KT도 SK텔레콤에 이어 지난 10일부터 ‘3G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전격 시행했다.

KT는 그간 와이파이(Wi-Fi)를 통해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즐겼던 이용자가 3G(WCDMA)를 통해서도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KT 역시 5만5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별 신청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과 관련, KT는 이미 데이터 트래픽이 많은 지역에 와이파이와 와이브로 네트워크를 충분히 구축해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3G 네트워크 용량 증설도 계획하고 있어 망 과부하 발생이나 QoS(Quality of Service) 제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LG U+는 현재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쟁사들이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시

행한 만큼 검토는 하겠다는 심산이다. LG U+ 관계자는 “경쟁사가 발표한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의 장단점과 소비자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LG U+는 100Mbps급의 속도를 지원하는 유선망 인프라 강점을 살린 ACN(AP Centric Network)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향후 차세대 이동통신인 4세대 에블루션(LTE)과 활용, 빠른 속도의 무선 데이터 환경을 제공한다.

LG U+ 관계자는 “지난 7월 보안이 강화되고 100Mbps급의 무선 데이터 Wi-Fi100 출시 후 50여일만에 9만 가입자가 넘어서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이를 통해 무선데이터 보안성 강화와 커버리지 확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재경기자 jiy0403@

한화 “2020년 매출 142조 영업이익 12조”

새 비전 ‘질적성장’ 선포
하반기 1970명 채용예정

한화그룹이 오는 2020년 매출 142조원·영업이익 12조원을 달성한다는 ‘퀄리티 그로우스(Quality Growth) 2020’을 선포했다.

또한 상생협력을 위해 상생펀드 및 네트워크론 등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한화인재경영원을 통해 협력업체 교육 및 온라인 프로그램을 지원키로 했다.

한화그룹은 “새로운 비전은 지난 5월부터 팩킨지와의 컨설팅을 거쳐 수립한 것”이라며 “태양광과 바이오산업 등 신사업 분야의 매출 비중을 2015년까지 10% 이상으로 확대, 2015년에 그룹 전체 매출 65조원·영업이익 5조원, 2020년에는 매출 140조원, 영업이익 12조원을 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날 최근 세계의 가장 큰 이슈인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한화는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 하반기에 대졸신입 480명을 포함한 197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한화는 상반기에 이미 2160명(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7월 오전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에서 경영전략회의를 주관하고 2020년 매출 142조원, 영업이익 12조원을 달성한다는 ‘퀄리티 그로우스(Quality Growth) 2020’을 선포했다.

올 신입 400명)을 채용해 올해 전체 채용인원은 연초 계획대비 21.5% 늘어난 4130명이 된다.

또 협력업체의 금융지원을 위해 지난해 상생협력 협약식 이후 조성된 상생펀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네트워크론(협력업체 자금 대출 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납품가격 안정화를 위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탄력적 납품단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협력업체가 가격변동이 심한 원자재

를 구매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번 협력업체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피부로 느꼈다”면서 “모든 협력업체에 공통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체별 특이한 애로사항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근 기자 ckpark@

성공학점은행 | baeumland.com

“이제 1년 만에 4년제 학사학위 취득하자”



[전체학과 수석합격 / 최고령(75세)합격 / 최연소(19세)합격]

1년만에 독학사 전체학과 배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
2009.2.23 서울교육문화회관

1년 3개월만에
91년생 독학사 최연소 합격자 배출
평생교육진흥원장상 수상
2009.2.23 서울교육문화회관

35년생 독학사 최고령 합격자 배출
평생교육진흥원장상 수상
2009.2.23 서울교육문화회관

최단기
학사 취득의
문이 활짝!!!

- ① 단기간에 학위가 필요하신 분
- ② 고졸자로 단기에 학위 취득 방법이 궁금하신 분
- ③ 전문대 졸업자로서 정규대학 학사편입을 원하시는 분
- ④ 서울 중위권 대학원 진학을 원하시는 분
- ⑤ 독학사, 방송통신대, 정규대를 중도 포기하신 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 4227호 : 1990. 4. 7)

저렴한 비용으로 단시간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독학사시험은 1990년 대통령령 4227호에 의거 4년제 정규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1년 동안 단계(3월, 6월, 9월, 11월)에 맞는 시험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학사학위취득 시 취업, 승진, 대학원진학, 학사편입 등에서 4년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156명의 박사
급 이상의 서울대, 연세
대, 고려대 전 현직 교수들이
펴낸 교재, 문제집,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으로
직장인이 하루에 1~2시간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

- 전공 (8개학과)
- 국어국문학과
 - 영어영문학과
 - 경영학과
 - 법학과
 - 가정학과
 - 컴퓨터과학과
 - 유아교육학과
 - 간호학과

성공학사고시 | www.baeumdhs.com 자료 및 상담무료 1644 - 8144



딩~동 총알 탄 행복 벌써 현관문 앞에

‘신속 배송’ TF팀도 구성

CJ GLS

CJ GLS는 추석 명절을 맞아 폭증하는 배송 물량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전담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고 배송 서비스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수 기간 동안 본사와 각 터미널, 지점별을 연결하는 비상 상황실과 연락망을 구축해 각 터미널의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교통, 기상이변 등 긴급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배송 정체 지역에는 직영차량 100여대로 구성된 고객서비스 전담팀을 투입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 추석에는 물량이 2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연휴 전까지 선물 배송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17일 금요일에 집하를 마감하고 연휴 전 일요일인 19일에도 정상적으로 배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터미널을 운행하는 간선 차량을 20% 가량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또 용달차량이



나 퀵서비스 오토바이 등을 사전에 확보하고 물류센터 및 택배 터미널 아르바이트를 총원해 폭증하는 물량에 대응하기로 했다.

택배 부문 외에 3자물류사업본부도 추석 특수 기간에 대비하고 있다. 3PL사업본부는 이미 지난 7월 중순부터 각 지역 거점별로 선물세트 재고 비축을 위한 창고를 확보하고 원활한 배송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시간 지정 서비스 강화

한진

한진은 연중 최대 물량이 집중되는 추석 기간 동안 비상운영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시간지정 택배 서비스인 ‘플러스택배’ 등 고객 서비스를 최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를 추석 특수기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배송 등 고객편의의 최대화를 위해 비상 운영체제에 들어간다.

특히 추석 연휴 하루 전날인 20일까지 배송 작업을 지속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석 특수기간 동안 전국 95개 터미널과 보유차량 4700여대 가용 차량을 풀가동하고 선물 등의 원활한 집하서비스를 위해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에 전담 인력과 전담차량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신선상품을 배송할 냉



장·냉동차량 600여대와 간선차량 150여대, 집배송차량 1000여대를 추가 투입기로 했으며 종합상황실 운영, 분류 작업원 증원, 본사 임직원의 현장 지원 등 추석 특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시간 단위 집배송 서비스인 ‘플러스택배’ 운영을 강화하고 전국 터미널을 통해 시간지정 서비스 권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오면서 택배업계의 손길도 바빠지고 있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 기간에는 선물 등의 물량으로 평소보다 20~30% 가량 수요가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올해는 추석 물량도 예년 수준을 20% 이상 웃돌 것으로 전망돼 전체적으로는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많은 물량을 소화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택배사들은 9월 둘째 주부터 연휴 전까지를 특별 배송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택배사들은 특별 배송기간 중 늘어난 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차량과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한편 각 사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택배업계는 연휴 기간 이후 하루 빠른 배송 서비스 재개를 비롯해 상황에 맞는 전담팀을 운영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윤철규 기자 yoonck@

폭증 물량 대비 차세대 터미널 가동

대한통운

대한통운은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을 추석 특별 수송기간으로 정하고 비상대기에 들어갔다.

회사는 이 기간 본사에 종합 상황실을 설치해 전국의 택배 물동량 흐름을 파악하고 원활한 배송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가 인력 투입 및 물류터미널을 풀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수백여 명의 추가 인력을 확보해 특수기 동안 현장에 투입해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

또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냉동냉장시설과 냉장차량 등 장비를 사전에 점검해 완벽히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통운은 특히 운용 중인 물류터미널의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폭증하는 물량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기존 대전 1, 2터미널은 물론 차세대 허



브터미널도 가동해 부하를 최소화한다는 전략.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대전 문평동에 짓고 있는 차세대 허브터미널을 부분 가동해 운영함으로써 추석 물량을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한통운은 최근 연휴기간 이후에도 물량이 많은 경

향을 감안해 연휴 마지막 날인 23일부터 대전 중계터미널을 운영해 통상 배송일보다 하루 빠른 24일부터 배송에 들어간다.

또 귀향 일정 때문에 택배 기사의 방문을 기다리기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편의점 네트워크를 활용해 편의점 택배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24시간 비상... ‘카드결제’ 고객 만족

현대로지엠

현대로지엠은 추석이 다가오며 따라 배송 시스템을 24시간 체제로 가동하며 명절 특별 수송 시스템을 본격화 하고 있다.

현재 전년 동기대비 20~30% 증가한 택배 물량이 매일 쏟아져 나오면서 현대로지엠 물류센터는 야간에도 대낮처럼 불을 밝히며 택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늘어난 물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24시간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차량과 인원을 풀가동하고 있다.

이를 위해 24시간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며 매일 5500여대의 택배차량과 6500여 명의 택배인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7일 본사 인원 현장 지원을 시작으로 추석 물량이 최고조에 이르는 13일 부터는 30% 증가된 차



량을 추가 투입하며 택배 배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속한 배송 체계 외에도 현대로지엠이 진행하고 있는 특화서비스도 고객만족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현대로지엠에 도입한 카드 결제 서비스는 현금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현금으로만 택

배비를 지불했던 개인 고객들이 결제 수단 다양화라는 점에서 호응을 보내고 있는 것. 카드 결제는 현대로지엠 홈페이지에서 택배 예약접수 시 이용하면 된다.

현대로지엠 측은 최근 편의점과 인터넷에서 소액 카드 결제 보편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신선식품 걱정 뚫” 별도 배송팀 편다

동부택배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동부택배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추석 특수기 배송을 위한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

추석시즌은 설 명절과 함께 평소 대비 2배 이상의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로, 동부택배는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배송을 위해 물류센터 및 차량 등 인프라점검과 더불어 차량과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배송 관련 문의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콜센터(T.1588-8848)도 비상 가동하고 있다.

동부택배는 대폭 늘어날 물량에 대비, 대전 종합택배터미널과 더불어 수원에 터미널을 추가로 운영,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물량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점과 터미널을 운행하는 간선차량 투입대수와 분류인력도 평소보다 30% 이상 추가 투입하고 있으며 기업물량의



경우 고객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출고 일정을 조절하는 등 물량 출고를 최대한 분산시켜 물류센터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방침이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관건이 수산물 등 관련 상품의 배송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더운 날씨에 자칫 상하기 쉬운 관계로 이들 신선식품 선물세트에 대해

패키지 보강, 배송 과정 간소화, 운송 시간 단축, 냉장차량 추가 확보 등 다양한 배송 방안을 수립해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 상태 그대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갈비, 굴비, 육통 껏값 등 온도에 민감한 선물세트는 별도 배송반을 투입해 가장 단시간 내에 배송하는 원칙을 세웠다.

이자녹스

이자녹스와 CHA태반연구센터가 찾은 피부생명의 코드 [rHPP-8™] 마침내 피부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생명탄생의 신비, 그대로부터- 테르비나 피부도 생명이기에 생명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피부생명 탄생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rHPP-8™] 마침내 이자녹스가 CHA태반연구센터와 함께 그 생명의 코드를 화상품에 그대로 담아내었습니다. 세포 재생을 도와 피부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테르비나-마치 오늘 태어난 피부 같은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TE'RVINA



rHPP-8™은 CHA태반연구센터의 독자적 기술로 탄생한 세포핵 태반 핵심성분입니다

CHA태반연구센터는 CHA태반연구센터의 부설연구기관입니다

ISA KNOX

CHA태반연구센터

ISA KNOX



정성으로 묶고 건강으로 엮은 선물세트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돌아왔다.

올해는 사회 양극화 현상이 선물세트 판매에도 반영돼 프리미엄급 제품이나 알뜰형 제품이 인기를 끌고 그 사이의 중간제품들은 비교적 판매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올 추석 선물세트를 분석해보면 10만원대가 넘는 고급선물세트와 1~2만원대의 실속형 선물세트가 눈에 많이 띈다.

여기에 이상기온으로 일조량이 저조한데다 예년보다 추석명절이 일찍 시작돼 농산물세트보다는 가공선물세트의 판매비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업체마다 '건강'을 키워드로 유기농으로 된 제품, 식초 등 발효제품, 조리용 천일염 제품 등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또 화장품 추석선물세트는 50만원대 고가 한방, 줄기세포 등 최첨단 생명공학 세트가 대거 선보여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고기는 한방화장품과 고품격 향산화 화장품 등 어르신을 위한 품격 있는 추석 선물세트도 마련됐다. 30~50대 여성을 위한 선물로는 나이보다 젊게 보이는 '동안' 트렌드에 힘입어, 노화를 관리하는 기능성 제품들이 두각을 보이고 있다.

경기불황의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장 넉넉한 명절 한가위에는 고마운 분들에게 평소엔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쓰임새 좋은 선물로 보답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다. 식품, 화장품 등 각종 업체들이 올 추석을 맞아 선보이는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모두 행복해지는 알찬 구성과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세트를 소개한다.

곽도흔·김연희 기자

97종 푸짐한 상차림... 소비자 선택권 넓혀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은 스팸과 식용유, 조미 김 등으로 구성된 식품세트 70종에 건강기능 식품세트 27종을 더해 전체 97종으로 이번 추석 선물세트 구성을 준비했다. 오천년의 신비를 포한 카놀라유와 참기름, 스팸 등으로 알차게 구성된 특선 2호(클래식200*4+카놀라500ml*2+진한참기름80ml+산들애(쇠)100g+허브맛솔트순한맛55g+오천년의신비200g(용기))가 3만4800원이다.

스팸, 백설유 등 전통적인 명절 인기 상품들로 엄선한 중저가 상품들의 인기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명절선물용의 스테디셀러 스팸은 스팸단품세트, 스팸 고급유세트, 북향세트 등의 다양한 구성으로 세트를 준비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했다.

스팸클래식(200g×2개)과 삼갈 클래식(80g×4개), 그리고 런천미트(200g×3개)로 구성된 스팸 10호가 1만990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스팸 클래식(340g×12개)으로만 채워진 스팸 1호가 5만5900원으로 비교적 고가 구성에 해당한다.

이번 식용유 세트 구성에는 새롭게 출시된 쌀눈유 제품이 추가돼 실용적인 식용유 선물세트에 건강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쌀눈유(500g×2개)와 카놀라유(500g×1개)로 구성된 백설유 프리미엄 10호는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쌀눈유



제품을 포함하는 구성으로도 가격대가 1만원 미만인 어서(9900원) 실속과들의 선물세트로 안정맞춤이다. 햇바삭김5호(재래김5g×21개)가 9900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스팸과 같이 구성돼 반찬류 세트도 실용도가 높은 햇바삭김 1호(재래김20g×8+스팸 클래식200g×4)도 2만99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돼 있다. CJ제일제당은 기존 인삼, 홍삼 한뿌리와 통째로 갈아 넣은 마, 그리고 액기스 추출제품인 홍삼 식스플러스 시리즈에 '통째로 더덕' 제품을 추가해 건강기능 선물세트 구성에 풍성함을 더했다.

홍삼·참치회 '고가' 캔제품 '중저가' 구성

동원F&B

동원F&B가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건강을 담은 '동원 추석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동원 선물세트는 정성을 전하고 싶어하는 모든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가격과 제품으로 구성됐다.

동원F&B는 올 선물세트를 중저가 참치 실속 세트에 초점을 맞췄다. 총 200여가지 제품 중 2~3만원대의 제품만 50여 가지를 구성했다. 또한 양극화되는 소비시장을 고려해 홍삼, 참치회 등 다양한 고가 제품도 준비했다.

참치세트로는 최고 인기세트인 캔57호(6만원), 실속 있는 참치로만 구성된 진호(4만1800원), 그리고 참치캔, 리셉, 카놀라유 등 다양한 제품이 혼합된 특19호(4만1000원) 등은 올 추석 주력 세트다.

한편 올 추석에는 '동원참치 명작' (2종)이라는 프리미엄 참치 세트를 특별 한정판(총 2만 SET)으로 생산해 판매할 예정이다.

동원참치 명작은 배에서 잡은 참치 중 신선하고 살이 좋은 황다랑어만을 선별해 급속 냉동시킨 'PS 황다랑어'를 주원료로 홍삼액기스와 쌀눈유를 첨가한 최고급 참치캔 세트다.

동원참치명작 165g 16캔이 들어간 명작-S의 가격은 13만원, 동원 설 선물세트는 가격대뿐만 아니라 품목도 다양해 받는 분의 취향까지 고려해 선택할



수 있다.

동원F&B의 주력 상품인 참치캔 선물세트 외에도 리셉 2호(7만4000원)와 같이 캔제품으로만 구성된 육가공 제품, 카놀라유4호(2만1000원)으로 대표되는 고급 유지류 세트, 들기름김과 카놀라유가 혼합된 양반김 혼합3호세트(3만3000원) 등을 준비했다.

그 밖에 참치회, 와인, 과일, 음료 세트와 명품김치 상품권 등의 특색 있는 선물세트도 마련했다.

동원F&B 설 선물세트는 '건강을 담은 선물세트'라는 컨셉에 알맞게 건강식품 관련 세트에도 정성을 기울였다. 홍삼브랜드 '천지인'과 미국 1위 건강식품 브랜드인 'GNC'를 중심으로 20여종의 건강식품 세트를 마련했다.

국민음료 '마시는 홍초'·신안 앞바다 '천일염'

대상 청정원

대상 청정원은 추석을 맞아 국민음료로 자리 잡은 '마시는 홍초'를 비롯해 신안 천일염, 유기농 오후드,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해서 만든 명품 장류 세트 등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선물세트를 마련했다.

'마시는 홍초'는 피로회복과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식초를 석류, 블루베리, 복분자, 매실 등 상큼하고 부드러운 과일과 함께 발효 숙성시켜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음료다.

석류와 복분자 900ml 2병으로 구성된 '홍초 2호'가 3만원, 석류/블루베리/복분자 500ml 각 1병씩 총 3병으로 구성된 '홍초 3호'가 2만6000원이다.

신안섬 갯벌에서 생산된 '3년 묵은 천일염' 세트도 인기다. 신안 천일염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프랑스 게랑드 소금에 비해 미네랄 함량은 높고, 나트륨 함량은 낮아 최고의 품질로 평가받고 있다. 천일염 800g 2개와 75g 2개로 구성된 '천일염 1호'가 3만6000원이다.

또 유기농식품 전문브랜드인 청정원 오후드(O'food)도 가격부담을 줄인 실속세트를 선보여 유기농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줄였다. 명절에 주로 사용하는 유기농 부침가루(500g)와 유기농 밀가루(1Kg), 유기농 황설탕(454g), 유기농 수라당면(400g), 유기농 양조간장(500ml)로 구성된 '오후드 정성세트'가 2만



5000원, 유기농 올리브유 350ml 1개와 유기농 적포도 식초 350ml 1개로 구성된 '오후드 3호'가 2만2000원이다.

지하 200m 천연 암반수와 국내산 검은콩 원료를 사용해 오후드에서 5년 동안 발효, 숙성시킨 '3년 묵은 간장'은 벌꿀로 맛을 낸 깊고 부드러운 맛과 향이 일품이다. 청정원화상 수상후보들이 받는 선물로도 유명하다. 550ml 2병으로 구성된 세트의 가격이 10만원이다. 발아현미와 황토방에서 피운 메춧가루, 전라도산 고추와 국산 쌀로 만든 '참쌀 발아현미 고추장'은 2.5kg 1세트가 11만5000원이다.

한우·과일등 친환경 명품 브랜드 '올가'

풀무원

풀무원 계열의 친환경식품 전문기업 올가홀푸드는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건강과 품격을 함께 담은 친환경 명품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겉질째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과일과 동물복지농장 적용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운 한우, 우수한 품질의 굴비, 육류세트와 흑산도 참 전복세트 등 명절에 꼭 필요한 실속만점 선물세트가 준비됐다.

또 국내산 참깨로 만든 참기름과 100% 천연 재료로 만든 천연 조미료, 생화차 등의 유기농식품과 산삼 배양근음료, 홍삼액, 흑마늘 음료 세트 등이 함께 준비돼 있다.

특히 올가 동물복지기준을 적용해 항생제와 성장촉진제 등이 함유되지 않은 식물성 사료로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키운 양질의 한우, 갈비, 사골 세트가 12만원에서 65만원까지 다양하다.

원산지가 분명하며 어획에서 통째까지 식품위생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인증 및 그에 준하는 위생 원칙을 준수해 품질이 우수한 굴비, 육류세트와 흑산도 참 전복세트 등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햇빛을 받고 자라 본연의 맛과 향이 살아있는 올가 친환경 과일은 국가공인 인증은 물론 풀무원 식품안전센터를 통해 잔류농약 검사를 한 번



더 가치므로 안심할 수 있다. 사과와 배, 메론, 상주꽃감 등의 올가 친환경 과일은 차례상 뿐만 아니라 손님 대접용으로도 좋다.

이외에도 믿을 수 있는 친환경 원재료를 사용하며 'L-글루타민산나트륨·합성 착색료·합성 보존료' 3無 첨가원칙을 지켜 안전하게 만든 올가 참기름, 천연 조미료, 생화차, 올리브 유 등 실속 만점의 다양한 친환경 가공식품이 준비돼 있다.

그 외 특별한 분을 위한 건강식품 선물세트도 산삼 배양근엑기스, 홍삼액, 흑마늘, 블루베리즙 세트 등이 준비돼 있다.

좋은 책은 꽃보다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21세기형 문화 판촉물 월간 <여행스케치>를 선물하세요

월간 <여행스케치>는 전국 방방곡곡과 해외 여행지를 직접 취재하여 펴내는 여행 전문 교양잡지입니다. 저렴한 가격이지만 내용만큼은 알찹니다. 전국 유명 여행지, 산과 계곡, 포구와 섬, 농산어촌마을, 진짜 맛있는 지역 특산물과 맛집, 펜션이나 리조트 등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누구에게 선물할까?

- 자주 뵈지 못하는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선물하세요.
- 매월 만나야 하는 거래처 고객에게 선물하세요.
- 매주 우리 회사를 찾아오는 고객에게 선물하세요.
- 증권회사 객장, 은행 객장, 우리 회사 대리점과 매장을 찾은 손님에게 선물하면 매우 좋아합니다.

다량 구매시 다양한 특전이 있습니다.
-비용을 할인해드립니다.
-귀사의 홍보하고 싶은 신상품을 특별 자면에 홍보해드립니다.
*잡지 구매 및 문의 상담: 02-795-3364 이보영 사원

[주] 하이미디어 P&I와 [주] 이투데이는 기획과 제작, 마케팅을 함께하는 제휴회사입니다.

(주)하이미디어 P&I에서는...
귀사의 잡지와 사보, 단행본을 만들어 드립니다. 귀사와 고객이 원하는 책을 기획해서 취재, 편집, 디자인, 제작, 발송까지 한꺼번에 해결해드립니다. 경력과 능력이 출중한 취재, 사진, 디자인, 제작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회사의 마케팅 전략과 예산에 맞춰 판촉물을 개발, 제작해드립니다.



회생그룹사보 여름호



가시기술공사 여름호



행복플러스 여름호

[주] 하이미디어 P&I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41-1 하이미디어빌딩
홈페이지 www.ktsketch.com Tel 02-795-3364, 6634

:: 좋은 판촉물 하나가 회사를 살립니다.

‘공정한 거래’ 정착 정부가 앞장선다

李대통령 中企 대표 이어 대기업 총수와 회동
‘中企살리기·고용창출’ 친서민정책 중점 추진
“정부 압박 오히려 역효과”제도보완 목소리도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삐를 바짝 당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만남 이후 대기업 총수들과도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견의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대부분 참석할 계획인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 날 대기업 총수들이 상생협력을 위해 직접 나서고, 상생의 혜택이 더 많은 협력업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무총리실 위촉으로 설립된 기업호민관실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과 함께 대기업들이 중소 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이행하는지를 계량화하는 ‘대기업 상생협력지수’ 제도를 도입한다.

사회 전반에 걸쳐 ‘상생’이라는 두 글자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생’과 관련된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등도 연이어 개최되면서 정부, 중소기업, 대기업 등 각계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가 대기업의 상생협력강화를 채근하는 데에는 하반기 국정기조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집권 후반기를 맞은 현 정부가 하반기에는 ‘중기 살리기와 고용창출’ 등 친서민적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기업들은 더욱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대기업 압박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계 관계자는 “정와대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기업 총수들이 상생방안을 내놓기는 하겠지만, 이는 기존에 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중소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조찬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것을 보완하는 수준이지 ‘서프라이즈’한 방안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벤트성 ‘상생협력 강화’가 아닌 정부가 우선

적으로 제도보완을 실시한 후, 산업계에 상생협력 강화를 요청하는 것이 순리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박철근·안경주 기자 ckpark@·ahnkj@

■주요 그룹사 구체적 상생협력 방안 잇따라 발표

펀드 만들어 금융 지원 협력사 자생력 확보 초점

국내 대기업들은 협력업체와의 상생강화를 위해 펀드 조성과 같은 금융지원과 자생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30대그룹은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약 3조3000억원 가량을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사용하고, 내년부터 상생을 위한 예산을 별도 편성하는 등 급전적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내달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의 설비투자·기술개발·운영자금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줄 예정이다. LG도 2·3차 협력사까지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연간 2500억원 규모의 ‘LG 상생협력펀드’를 이 달 중에 신설키로 했으며, SK그룹은 상생펀드를 기존 12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GS그룹도 상생펀드 1800억원 신규조성을 포함한 6600억원의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주요 기업들은 ‘물고기들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방식의 상생방안을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기술·품질·경영 인프라 등이 우수한 협력사 중 2015년까지 50개사의 ‘베스트 파트너’를 선정, 기술개발에서 경영인프라 구축까지 종합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물적·인적지원을 할 예정이다.

기술개발·경영인프라 구축 해외시장 동반 진출도 모색

현대차그룹도 글로벌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춘 1·2·3차 협력사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해외 동반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해외에 진출하지 않은 2·3차 협력사들에 대해서는 해외진출한 1차 협력사에 부품을 공급토록 해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또 해외 동반진출 및 해외 바이어 연결 등을 통해 협력사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도와 협력사의 매출 확대는 물론

주요 대기업 그룹사 상생협력강화 주요내용

(자료: 각 사)

	최대 1조원 규모 협력사 지원펀드 조성 1차 이하 협력사 경쟁력 제고 위한 종합지원책 마련 우수협력사 50곳 글로벌 기업 육성(2015년까지)
	사급제도 2·3차 협력사로 확대 2·3차 협력업체 해외진출 확대 원자재값 인상시 납품단가에 반영(분기별 5% 기준)
	2·3차 협력업체까지 대출 받는 2500억원 상생펀드 조성 협력회사 인재개발 센터 설립 및 해외시장 동반진출 그린 신사업 분야 차세대 기술 공동개발
	상생펀드 1500억원으로 확대 IT 중기 경쟁력 강화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운영 2차협력사도 상생펀드 및 상생 아카데미 개발
	상생펀드 1800억원 등 6600억원 신규 자금 지원 협력사 경쟁력 확보 위한 시설 및 교육지원 확대 협력사 공동 상품 개발 등 신규 사업기회 창출 지원

글로벌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LG그룹도 LG인화원에 ‘협력회사 인재개발센터’를 설립, 협력사 후계자들을 대상으로 경영교육을 실시한다. SK그룹은 500억원을 투자해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해 IT 중소기업의 사업 및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고, GS그룹은 계열사별로 해당 협력업체의 기술·교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포스코 역시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3300억원 규모의 상생보증 프로그램을 조성하는 한편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펀드를 운용해 2~4차 협력 중소기업에게 저리로 대출한다. 특히 재계 총수들이 협력업체와의 상생강화에 관심을 갖고 ‘중기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은 이 달부터 관계사

CEO들과 함께 협력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할 예정이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달 (주)한화 협력업체들을 직접 방문해 협력업체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해 준 바 있다. 박용현 두산그룹 회장도 지난 6일 사장단 회의를 갖고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세부 경영계획에 포함시키고, 상생협력 이행실적을 CEO 평가에 반영 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주요기업들의 상생강화방안을 살펴보면 크게 금융 및 자생력 확보 지원으로 요약된다”며 “비교적 경영상태가 양호한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주어져 중소기업과 진정한 상생으로 가는 효과적 해법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철근 기자 ckpark@

대기업, 채용확대 ‘화답’

주요 대기업이 올해 하반기 채용 규모를 대폭 늘리면서 취업 시장이 크게 활기를 띠 전망이다. 이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청와대와 정부의 줄기찬 일자리 늘리고 요구에 대기업들이 적극 화답하면서 나온 긍정적인 현상으로 분석된다.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을 비롯해 LG그룹·SK그룹·한화그룹·STX그룹·KT 등 주요 대기업이 잇달아 채용계획을 발표했다. 이견희 삼성전자 회장 복귀 후 광복 행보를 보이고 있는 삼성그룹은 올해 하반기에만 1만11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중 대졸 신입사원은 4500명에 달한다. 특히 삼성전자가 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 나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LG그룹도 신입·경력 채용을 지난해 하반기 3600명에서 올 하반기 7300명으로 2배 이상 늘리는 등 스마트폰·스마트TV와 같은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하고 있는 LG전자를 필두로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주요 대기업 2010년 하반기 채용		
기업명	채용인원	원서마감일
삼성	1만1100명(4500명)	마감
현대차	상반기 5000명	10월 중
SK	1500명(700명)	9월18일
LG	7300명(4100명)	계열사별로다름
롯데	미정(750명)	10월 초
포스코	3500명(800명)	9월 중
GS	1200명(300명)	9월 중
현대중공업	300명(전체)	9월19일
금호아시아나	채용계획 없음	
한진	1500명(전체)	미정
KT	미정(430명)	9월27일
두산	미정(700명)	9월13일
한화	1970명(480명)	9월28일
STX	2300명(1600명)	9월16일 (일부 계열사 18일)
효성	미정(500명)	9월17일

(위는 대졸 신입사원 채용 인원)
유통업계도 신규매장 오픈 등 사업을 확장하면서 채용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화점과 마트 계열사를 가진 롯데그룹은 10월 경에 대졸사원 750명을 포함해 6500명을 하반기에만 선발할 예정이며 신세계도 100명 가량을 선발한다.

경기회복 기대 맞물려 취업시장 활기 하반기 당초 계획보다 10%이상 늘려

SK그룹은 경기 활성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1500명을 채용하며 이 중 700명을 신입사원으로 모집한다. SK그룹은 “상생일자리 나눔 종합대책에 따라 당초 예정했던 채용규모에서 30% 늘렸다”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과 각 계열사별 신규 사업 확장에 따라 신규 채용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공채 숫자를 따로 공개하지 않는 대신 신입·경력 채용 규모를 상·하반기 총 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00명 가량 늘렸다. 한화그룹도 올 하반기에만 1970명(대졸신입 48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최근 중공업 경기가 살아나면서 STX그룹, 두산그룹 등을 중심으로 채용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STX그룹은 대졸신입 1600명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에 23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중공업 비중이 높은 두산그룹과 효성그룹도 올 하반기 대졸신입사원으로 각각 700명과 500명 가량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일부 기업의 경우 종전의 채용과 다르게 인성을 강조하고 현장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등 채용기준이 변화한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삼성그룹은 서류전형화 필기시험 위주의 종전 채용방식에서 벗어나 응시생들을 실제 현장에서 일을 시켜본 뒤 이를 바탕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모집 부문이나 지원 자격이 계열사마다 조금씩 다른 LG그룹도 종전 계열사별로 실시하던 인성검사를 통합한 새로운 인성검사로 대체했으며 STX그룹은 채용 초기부터 전문가격 보유자, 다중언어 사용자 등 다양한 능력의 인재를 뽑기로 했다. 재계 관계자는 “경기회복의 신호가 뚜렷해지면서 대기업은 필두로 고용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엔 기업들이 자사에 맞는 다양한 인재상을 요구하는 만큼 단순히 스펙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갖고 뛰어 업무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경주 기자 ahnkj@

목포에서 서울까지 걸어야 할 작정이라는 말에
택시가는 헛소리 말하며 한바다로 일출한다.

우리가 진짜 미친 걸까?

신미식 경기도 용인에서 1년에 백번도 채아나고, 대만에서 그레이트리치먼을 전공했다. 시골에 처음 가는데부터 길, 토산에 가는데부터 들고 아프니까, 아시아 오지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여행본능을 일깨우는 생동감 넘치는 글과 사진으로 발간한 **살은 사는 사람들에겐 특별한 꿈을 꾸게 하는 사진**이라는 책을 들고 있다.

이민 전남 함평에서 가마의 반으로 태어났고, 경기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했다. <시나리온>에서 자동차 전문기자로서 활동했고, 그 후 한국 최초 신약이동자 겸주 <신약이동자> 기획 <KBS 25년 전사기>를 2년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다. 신미식과 함께 대한민국 국도1번을 도보여행 한 이후, 그는 일주일에서 세 번 한걸음마다 도보여행을 계속 하고 있다.

목포에서 서울까지 국도1번을 따라 450km를 걸어서 완주한

사진작가 신미식과 글쟁이 이민의 도보여행기

살아가면서 한 번도 미치고 싶은 일이 없다면 그 인생은 언제나 참담다!

“너도 저 여행을 함께 했어야 하는데……”
구불구불한 시골길,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도랑길을 걷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자주 겹쳐진다.
— 여행스케치 리더 조병석

대한민국 국도1번 걸기여행

주머니 가볍고 꿈은 무거운
물부지 두 남자의 여행기

신미식+이민 글 사진 | 352쪽 | 값 15,000원

“DTI 폐지만으로 부족, LTV도 풀어라”

업계 “8·29 부동산대책 효과 미미”… 규제 추가완화 요구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 시켜야 주택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부동산 및 건설업계가 LTV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철폐 등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2주일이 지나도록 시장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 등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 부동산 활성화 대책 직후 분양에 나선 동아건설의 ‘용산 더 프라이م’의 경우 인근 지역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물량이 미분양됐다. 업계는 이를 DTI규제 폐지가 실 수요자들의 구매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방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 도심 재건축 단지에서도 대책 발표로 인한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대책발표 이후 1000만원~2000만원 정도 소폭 상승했던 집값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DTI규제 폐지로 인해 주택구매 심리가 되살아나 투기수요를 조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주장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8.29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것은 외발자전거식 대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는 DTI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 실질적으로 시장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외발 자전거식 대책으로 주택구매 심리 못살려 금융위기 가능성 없어 10%정도 상향 조정 필요”

것을 8.29 대책에 담지 못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장에서는 현재 40~60%로 묶여있는 LTV를 함께 풀어야 실수요자들의 구매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구매를 억제시키는 것은 DTI보다는 LTV규제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DTI로 실

수요자들의 주택구매 심리가 시간이 지남수록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LTV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위기와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LTV규제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LTV를 늘린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해 금융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반박하며 10%정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금융권에서 수요자들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해 준 평균 LTV는 작년말 현재 34.4% 수준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가계부실과 금융위기 초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금융권의 주택담보 대출과 관련 가계 건전성이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는 것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는 것. 실제 우리나라 LTV 적용율은 약 34.4% 수준으로 미국 76.6%, 영국 70%, 프랑스 78%, 일본 70~80%에 비해 절반도 채 안돼 가계대출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8.29 대책에서 LTV를 제외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활성화 대책을 동원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시도했지만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며 “실수요자들에게 LTV한도를 60%까지 늘려야 실수요자들의 구매욕구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성일 기자 hsi@

부동산 관련법안 100여건 통과될까

분양가 상한제 폐지·LH 지원법등 쟁점법안 국회계류

정부의 8.29 부동산대책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이 이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체 법안 500여건 가운데 부동산 관련 법안은 100여건에 달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법안,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법안,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지원 법안 등이 쟁점 법안이다. 특히 이중에서는 발의된지 1년이 지난 법안들도 있어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은 리모델링이 새로운 주택 정비사업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특히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과 LH지원 법안은 찬반 의견이 팽팽해 법안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된 법안은 모두 3건으로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민간택지 상한제 폐지,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택지 85㎡초과 주택 및 민간택지 상한제 폐지, 그리고 그린 홈 등 친환경주택 상한제 폐지안 등이 계류 중인 상태다.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는 민간 건설부분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설업계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8.29 부동산대책에서도 폐지가 예상되

기도 했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미분양과는 관계없다는 의견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LH지원 법안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어 통과 여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선을 달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기업의 부채를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또 LH 부채의 원인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 법안 처리는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명훈 기자 augustin@

은평 뉴타운 반값 할부 분양

은평뉴타운에 최초로 중도금 할부 납부 방식이 도입된다. 아파트 가격의 반값만 내고 입주하고, 나머지 잔금은 3년 동안 6차례 나눠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은평뉴타운 1, 2지구 잔여물량을 할부분양 방식으로 선착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부 분양되는 은평뉴타운 1,2지구는 전용면적 134㎡(분양가7억~7억3000만원), 167㎡(분양가8억7000만~9억원)으로 잔여물량 215세대를 오는 16일부터 분양한다. 할부분양 방식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면 별도 이자 내지 않아도 돼 분양가의 5% 가량 저렴한 게 분양받는 효과를 얻게된다.

분양금 납부방법			
구 분	계약금	입주잔금	할부 분양금(무이자)
납부금액	분양금의 20%	분양금의 30%	분양금의 50% (1~5회 : 각 8%, 6회 : 10%)
납부기한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60일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6개월 단위로 총 6회 납부)

이번에 선착순 할부 분양되는 물량은 은평1지구 A,B,C공구 5개 블록(2,3,4,5,14) 전용면적 134㎡ 1세대, 167㎡ 11세대와 은평2지구 B,C공구 6개 블록(2,3,6,7,8,11) 전용면적 134㎡ 31세대 167㎡ 172세대이며,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이후 미계약, 선착순 분양하고 남은 잔여세대다. 문의 1600-3456.

김부미 기자 boomi@

부동산 돋보기

3평짜리 아파트 있다? 없다?
부산에 전용면적 11.01㎡...공시지가 230만원

전용면적 11.01㎡은 과거의 평수로 따지면 3평이 조금 넘는 크기다. 부산광역시에서 이 크기의 아파트가 실제 존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전국 아파트 면적별 공시가격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싼 아파트로 부산 남구 문현동 성동아파트가 이름을 올렸다. 이 아파트의 매매가는 230만원(공시지가 기준)이고 전용면적은 11.01㎡(3.3평)이다. 5개동 100세대가 들어서 있는 성동아파트는 지난 1974년 지어져 올해 37살이 됐다. 성동아파트는 원래 전용면적 49㎡, 53㎡으로 두가지 유형이 가동부터 마동까지 5개동 5개층으로 돼 있는데, 6층에 한층

을 올려, 3평 남짓한 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가동에 3세대, 나동부터 라동까지 각각 2세대, 마동에 1세대 총 10가구로 구성돼 가구수는 많지 않고, 내부는 원룸 형식으로 돼 있다. 이 아파트 주변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소규모 점포들로 구성 돼 있고, 성동초, 성동중, 문현여중, 문현여고 등 학군이 형성 돼 있다. 주변에 평화시장, 부산시민회관 등이 밀집해 있다. 아울러 아파트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2호선 문전역이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한편 이 아파트 전용면적 49㎡의 현재 공시지가는 3200만원이고, 53㎡ 공시지가는 3500만원이다.

김부미 기자 boomi@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항목	내용	
대상주택	-85㎡이하, 6억원 이하 모든 주택	
자 격	-강남3구 소재 주택 제외	
	-만 20세 이상 가구주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원 전원 주택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단독가구주의 경우 만 35세 이상
	-만 35세 미만 미혼 가구주는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한 경우	
조 건	-35세 이하 결혼예정자는 증빙자료 제출 필수	
	-가구당 연리 5.2% 확정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2억원 한도 20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거치기간 1·3년)		

■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 문답풀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오늘(13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2005년 말 이후 5년 만이다. 국토해양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해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대출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만 해당하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등기부등본상 주택인 경우로 신규분양 주택, 기존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 소재 주택은 제외된다.

록등본을 내야 한다. **-대출 지원 조건은.** 가구당 2억원 한도에서 고정금리로 연 5.2%, 다자녀(만 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은 연 4.7%로 20년간(거치기간 1년 또는 3년 선택) 원리금 균등상환하는 방식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대출한도 2억원과 담보로 평가된 금액을 비교해 남은 금액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사행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더라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가구당 2억 한도 ...원리금 균등상환 만20세 이상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경매 받은 주택도 신청 가능한가. 경매로 주택을 취득해도 대출대상 주택에 해당하면 자금이 지원된다. 경매에 참가하기 전에 대출 신청 가능 여부(대상주택, 지원 자격 등)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 대상은.** 만 20세 이상 가구주 가운데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여야 하고 자신을 포함해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주도 신청할 수 있다.** 생애최초대출은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인 만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만 35세 이상 단독가구주, 만 35세 미만의 미혼 자녀 가구주로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경우 등은 가능하다. **-결혼예정자로 대출 신청 때 만 35세 이하인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결혼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예상장 계약서, 청약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출받고서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혼인 신고해 배우자와 합쳐진 주민등록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을 분양받아 현재 은행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같이 탈 수 있나.** 시중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준공된 후 국민주택기금이 근저당권 1순위가 된다는 확인문서를 제출하면 중복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 수탁금융기관인 우리·하나·기업·신한은행과 농협에서 대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1588-5000), 하나은행(1599-1111), 기업은행(6322-5000), 신한은행(1599-8000), 농협중앙회(1588-2100)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은행을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는.**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증빙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배우자의 '개인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타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다.

김성배 기자 sbkim@

사회복지사 자격증

배움랜드

www.baeumland.com

◆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발급 안내 (보건복지부 주관)

- 사회복지 필수 10과목과 선택 4과목 총14과목 이수 시 발급 -

- 고등학교 졸업자 : 총 80학점(이수, 사회복지학 전문학사학위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자 : 총42학점(14과목) 이수, 사회복지학 복수학위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 구비서류 안내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5부, 주민등록등본 2통
-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자 : 대학 졸업증명서 5부, 주민등록등본 2통

※ 문의 주시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에 관련된 자세한 자료, 정보, 상담해드립니다.
(02) 2679-7773 상담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 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라고 정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동법 13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태평양 그룹
AMORE PACIFIC

서경배 사장, 지주사 지분 56%...확고한 지배력



서경배 사장이 지주회사 지분 55.7%를 확보해 안정적 경영 기반을 갖추고 있는 태평양그룹은 투자회사와 사업회사 분할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앞으로 해외매출을 확대해 2010년 글로벌 톱10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사진은 태평양그룹의 대표 자회사인 아모레퍼시픽 본사 전경.

“‘태평양’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진 조그만 간판이 개성 지방의 한 상점에 걸렸던 그 순간, 아마도 창업자는 세계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중국과 프랑스, 미국을 넘어 지구촌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창립 65주년 및 제 2연구동 ‘미지움’ 준공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가 한 말이다.

태평양그룹은 오는 2015년 세계 10위의 화장품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서 사장은 지난 2006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톱 10’으로 도약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뼈아픈 구조조정 지주사 전환으로 마무리

태평양그룹은 고(故) 서성환 회장이 1930년대 개성에서 모친 윤독정 여사와 함께 화장품 제조업으로 기틀을 마련한데서 비롯됐다. 1945년 9월 태평양화학공업사를 설립한 뒤 최초 고유브랜드 ABC를 탄생시켰고, 1959년 태평양화학공업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룹의 면모를 갖췄다.

1980년대 들어 태평양은 생활용품 사업 및 녹차 사업에 진출하면서 생활문화기업으로 변모했고 이후 사업다각화를 펼친 결과 1991년에는 계열사가 24개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확장과 IMF 외환위기로 태평양그룹은 경영위기를 맞이했다. 지난 1997년 3월 (주)태평양 대표이사직에 오른 서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뼈아픈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취임 이듬해 전자부문 계열사인 태양잉크를 일본 다이요잉크에 매각하고 있따라 금융계열사 동방상호

신용금융, IT업체 태평양정보기술과 태평양시스템을 청산했다.

구조조정은 지난 2006년 6월 투자회사인 (주)태평양과 사업회사인 (주)아모레퍼시픽의 분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완료됐다.

태평양그룹은 성공적인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화장품과 생활용품·건강제품 등 ‘미(美)와 건강(健康)’ 핵심사업 역량 강화, 주주가치 제고, 경영위험 분산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구조조정 후 금융부터 전자·스포츠 분야까지 24곳에 이르는 계열사는 현재 화장품업체인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이니스프리 및 태평양제약, 퍼시픽글라스 등을 중심으로 절반 이하인 9개로 줄었다.

이러한 구조조정이 밑바탕이 돼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1조원을 돌파하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영업이익률도 21%를 기록하는 등 국내 화장품업계 1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 서경배 사장, 2세 중 가장 성공한 CEO평가

지주회사 태평양은 아모레퍼시픽(이하 지분을 35.4%, 보통주 기준)을 비롯, 퍼시픽글라스(100%), 장원(100%), 아모스프로페셔널(100%), 에뛰드(80.5%), 태평양제약(65.1%), 이니스프리(81.8%) 등 9개 자회사를 두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등 9개 자회사 경영 장악 1997년부터 10년간 ‘뼈아픈 구조조정’ 투자회사·사업회사 분할 성공적 완료 해외매출 확대 “2015년 글로벌 톱10”

태평양그룹은 그룹 오너가 지주회사인 태평양에 대해 안정적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그룹 전체에 대한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태평양그룹 지배주주인 서경배(47) 태평양 사장은 태평양의 최대주주로서 55.7%에 달하는 지분을 소유하며 쉽사리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는 견고한 지배기반을 갖춰놓고 있다. 서 사장은 태평양 지분 외에 태평양제약 0.3%, 아모레퍼시픽은 10.72% 등의 지분도 갖고 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은 59.98%에 달한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MBA를 취득한 서 사장은 1988년 태평양 경리와 과장으로 입사,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영전반에 대한 수업을 받은후 1997년 부친인 고 서성환 회장에 이어 ‘경영 대권’을 물려받았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태평양 기초실장을 맡으면서 야구단과 농구단을 없애고 패션사업에 손을 떼는 등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며 지주사 전환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IMF 경제위기를 거쳐 외국인 제품의 공세 속에서도 국내시장에서 1위 자리를 수성, 매출 2조원을 바라보는 거대 기업으로 일궈 2세 경영인 중 가장 성공한 CEO 중 한명으로 평가 받고 있다.

◇ 2015년 매출액 5조...세계 톱10목표

아모레퍼시픽은 2015년 세계 톱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체 뷰티매출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해외매출비중은 2015년 29% 수준까지 끌어올려 글로벌 매출액 1조2000억원 포함 총 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태평양그룹 지분구조 현황 (2010.09.02 현재)



구체적으로 뷰티 분야에서 2015년까지 10개 메가 브랜드를 육성해 세계 10대 화장품 회사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헬스 분야에서는 5개 메가 브랜드를 육성하여 건강기능식품의 리딩 기업으로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글로벌 메가 브랜드를 집중·육성함과 동시에 진출 지역을 단계별로 확장할 계획으로 설화수와 마몽드를 글로벌 챔피언 브랜드로 육성, 글로벌 고객인 사이트 발굴에 전념할 방침이다.

40여년간의 한반연구 기술이 집약된 최고급 브랜드 설화수는 강한 브랜드 파워와 모양이 불가능한 품질을 앞세워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진입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홍콩과 미국에 통칭한 설화수는 향후 중국, 일본 등 신규시장 등에 단계적으로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진출해있는 마몽드는 매스 경로의 챔피언 브랜드로 육성해 2015년까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도시 거점 확대의 주역화할 계획이다. 마몽드는 현재 중국 300여개 백화점 및 2010개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더욱 공격적으로 지역 및 매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아모레퍼시픽은 지난 90년대 초부터 글로벌브랜드 전략을 추구하며 중국과 프랑스에 공장을 설립, 현지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북미, 서유럽, 동남아시아, 대중화권, 일본의 세계 5개 권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미주, 프랑스를 3대 축으로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향후 문화 경제적 유사성 및 지리적 근접성에 기반하여 새로운 권역에도 순차적으로 진입, 소명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갈 예정이다.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 사업은 전년대비 21% 이상 성장하며 283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특히 중국사업의 경우 순이익이 1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에 기자 lsa@

또 한번의 飛上 ‘미지움’ 서 이론다

제2연구동 준공...공·인삼·녹차 핵심원료 선정 R&D투자 확대

“‘미지움’은 전 세계 여성이 꿈꾸어 온 ‘건강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공간이자, 아모레퍼시픽이 꿈꾸어 온 진정한 아시아 뷰티를 현실화 시켜주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일 연구에 보다 창의성을 불어넣고 글로벌 고객의 니즈와 아시아 뷰티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자 제 2연구동인 ‘성지관’ 옆에 제 2연구동인 ‘미지움(美智움, Mizium)’ (사진)을 준공했다.

‘아름다움(美)을 추구하는 지혜(智)의 장(堂)’이라는 의미와 ‘미지(未知)의 세계를 개척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는 ‘미지움’은 지하 2층, 지상 3층 총 2만6000㎡ 규모로 총 500억 원이 투입됐다. 포르투갈의 세계적인 건축가 ‘알바로 시자(Alvaro Siza)’가 그 설계를 맡아 글로벌 수준의 최첨단 연구공간으로 완성됐다.

‘미지움’은 ‘자유로운 소풍’, ‘자연과의 융화’를 대표적인 컨셉으로 한다. 먼저 연구공간은 전면이 탁트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정 및 고층창을 두어 자연광의 유입을 극대화하고 빛과 공기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더불어 이중외피와 고효율기기, 친환경재료,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필로티와 예술작품 등 자연 및 인간친화적인 특징은 미지움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미지움’은 연구원에게는 자아실현의 기회를, 고객에게는 보다 새로운 아름다움을 전달 수 있는 창의적인 연구의 장이 될 것이라 게 회사측



설명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미지움 준공을 통해 2015년까지 현 330명 수준의 연구원을 500명까지 증원하고 글로벌 톱10으로의 도약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곳에서 연구하게 될 과제는 크게 두 가지. 롱 인삼 녹차 등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과 바이오 기술을 이용해 피부 노화의 비밀을 푸는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몸에 좋은 다양한 효능을 지닌 롱 인삼 녹차 등의 재료에서 추출한 물질을 화장품 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20% 수준인 ‘3년 이상 중장기 R&D 프로젝트 비중’을 연내 4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선에 기자 lsa@



www.DSshop.co.kr

동성제약주식회사

트러블 피부를 위한 뿌리는 에센스!

꿀벌의 벌침액(봉독) 함유 화장품
에이씨케어 워터 에센스



트러블 피부를 위해 스킨과 에센스를 하나로 - 에이씨케어 워터 에센스, 이제 간편하게 뿌려만 주세요~

차원이 다른 피부 트러블 케어 - 에이씨케어 워터 에센스

- 농촌진흥청과 동성제약 중앙연구소의 공동개발로 탄생한 꿀벌의 벌침액이 함유되어 민감한 트러블 피부에 좋습니다.
- 빠른 피부 침투로 피부의 진정 효과가 우수한 워터 에센스입니다.
- 파우치에 에센스 원액만 담아 미세한 안개처럼 분사되는 특수용기입니다.
- 벌침액 성분이 손상된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어 줍니다.
- 흘러내림 없이 빠르게 흡수되어 메이크업 한 후에도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흘러내림 NO! 뭉침 NO! 간편하고 위생적인 워터 에센스

미세한 안개분사 방식 미스트 타입



▶ 에이씨케어 워터 에센스



▶ 일반 워터 스프레이

위생적인 파우치 질소 충전 용기



▶ 에이씨케어 워터 에센스



▶ 일반 워터 스프레이

*에이씨케어 워터 에센스 이런 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 울긋불긋 민감한 피부! • 피부관리가 필요한 등과 가슴의 피부! **NAVER** **동성이십** 네이버 검색창에 동성이십을 검색해 보세요.

■ 소비자 상담번호 : 080-777-0055

신규 게임 대거 장전... “글로벌 과녁 명중 시킨다”

세계시장 향해 날개 펴는



네오위즈게임즈가 내수시장 공략과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게임사를 향한 비상 날개를 펴고 있다. 특히 하반기 오픈 예정인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인 ‘레이더즈’와 액션RPG ‘록맨 온라인’, 낚시게임 ‘청풍명월’등의 신규 게임은 네오위즈게임즈의 제2의 도약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M&A 통한 외형성장 본격화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5월 20일 ‘세븐소울즈’로 유명한 온라인 게임 전문 개발사인 씨알스페이스의 49%지분(인수금액 127억 원)을 인수했다.

씨알스페이스는 1999년에 설립돼 온라인 무협게임인 ‘디오 온라인’과 액션 축구게임 ‘킵오프’를 개발했고 최근에는 성인 MMORPG를 표방한 ‘세븐소울즈’를 선보이며 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중견 개발사이다.

특히 해외 현지기업과의 공고한 파트너십을 통해 4개 대륙 60여 개 국가에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1인칭슈팅 게임(FPS), 스포츠 등 캐주얼 게임 분야에서 성장 기반을 다져왔던 네오위즈게임즈는 씨알스페이스를 통해 MMORPG 라인을 키우고 개발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게 됐다.

네오위즈게임즈의 개발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온

라인게임 개발사인 ‘펄소프트’와 ‘펜타비전’을 각각 인수한 바 있다. 또 지난 2007년 일본 게임업체 ‘게임온’을 자회사로 편입시켜 해외 시장 진출의 거점기지로 삼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 이상엽 대표는 “네오위즈게임즈는 이번 M&A를 통해 MMORPG 라인업 강화와 해

크로스파이어로 대표되는 수출 게임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2009년 매출 중 해외사업 부문에서만 621억 원 달성했고 매분기 해외진출 확대가 꾸준히 이루어져 매출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2010년에는 연초 가이던스 대비 56%, 전년 대비 125% 증가한 1,4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1



이상엽 대표

온라인 전문 개발사 인수 경쟁력 강화 유럽·북미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 온힘

의 시장공략 등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 글로벌 게임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사업 강화

국내 사업 경쟁력 확대와 함께 해외 사업 부문 강화도 핵심 추진 전략 중 하나이다.

분기에 292억원을 기록했으며,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18%, 전년동기 대비 172% 성장한 346억원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중국에서 동시접속자 180만명, 베트남 10만 명을 돌파한 크로스파이어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대만, 태국 등에 수출한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이 추가 상용화가 예정되고 있어 해외 매출 성장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 지사와 자회사를 통한 적극적인 현지사업과 다양한 게임의 수출 확대를 통해 글로벌 행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



네오위즈게임즈의 MMORPG ‘레이더즈’

화시키기 위해 수출확대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의 일본도에서 벗어나 수출 시장을 다변화 시키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크로스파이어는 게임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동시접속자 2만 명을 넘어서며 동서양 모두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야구게

임 슬러거는 대만을 비롯해,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MLB라이선스 획득 등 철저한 현지화 작업을 거쳐 서비스 중이다.

또 다른 FPS게임 아바(A.V.A.) 역시 중국, 대만, 일본과 함께 미국에 진출하였다. 액션 FPS게임 S4 리그도 유럽과 북미에서 매출확대

에 주력하고 있으며, 태국에도 최근 진출, 서비스 준비 중에 있다.

이상엽 대표는 “해외 시장 개척에 더욱 적극적으로 매진하는 한편, 신규 대작들을 성공적으로 선보여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핵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MMORPG ‘레이더즈’ 공습준비 완료!

하반기 신작 4종 ‘눈길’

네오위즈게임즈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하반기 신작 4종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MMORPG ‘레이더즈’는 ‘건작 온라인’을 통해 개발력을 인정받은 마이네트 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게임이다. ‘레이더즈’는 광활한 필드에서 이룬바 에픽 몬스터로 불리는 수많은 보스 몬스터들과 전투를 통해 액션의 진면목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보스 몬스터는 뛰어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캐릭터를 잡아 던지고 삼키는 등 기존 RPG에서 볼 수 없었던 동작을 세밀하게 묘사해 차별화된 재미를 선사한다.

지난달 1차 비공개 시범 테스트를 통해 레벨이 올라갈수록 캐릭터 육성의 재미를 비롯해 스토리와 자연스럽게 연계된 퀘스트(미션)가 게임에 몰입감을 높여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레이더즈’는 이번 테스트를 통해 나온 이용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콘텐츠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신규 지역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해

을 연말 2차 비공개 테스트를 실시, 내년 상반기에 공개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다른 신작 ‘록맨 온라인’은 일본의 대표 게임사 캡콤과 공동 개발중인 3D 횡스크롤 액션게임이다. ‘록맨’은 1987년 처음 게임으로 발매된 이후 ‘록맨 클래식(오리지널)’을 비롯해 ‘록맨 X’ 시리즈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제작된바 있으며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탄탄한 마니아층 형성하고 인기 캐릭터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중인 ‘록맨 온라인’은 원작자들과의 공동 감수 및 개발을 통해 원작의 느낌을 살리고, 진화하는 캐릭터와 다양한 스테이지 등 RPG만의 기본적 특징을 접목시켜 기존 록맨 팬들과 액션RPG 유저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프로젝트 G’(가칭)은 글로벌 FPS게임 ‘크로스파이어’로 잘 알려진 개발사 스마일게이트가 개발 중인 실사 골프게임이다. 실제 골프를 가상의 공간에서 사실상 있게 느낄 수 있도록 지형과 클럽의 관계, 클럽 별 구질 차이까지 고려했으며 게임 유저뿐만 아니라 골프마니아들도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조작법을 간편화했다.

여기에 실제 국내 유명 골프장과 계약을 통해 코스 및 주변 지형을 그대로 재현할 예정이며 다양한 커뮤니티 활성화와 수단을 통해 기존 게임들과 차별화되는 재미를 선사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G’ 역시 올해 안에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정식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풍명월’은 저스트나인에서 개발 중인 낚시게임으로 제작기간만 3년에 달하는 네오위즈게임즈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신작이다.

낚시의 본질을 게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한강을 포함한 전 세계 낚시터를 선보인다. 차체 개발한 물리엔진으로 이용해 낚시대와 고유 특징인 경조, 연조 별로 실제 낚시대의 느낌을 사실감 있게 보여준다.

여기에 단순한 대전 방식에서 벗어나 MMORPG 방식의 퀘스트 시스템 구현 등으로 차별화된 재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차 비공개 시범 테스트를 통해 게임성을 인정받으며 기대작으로 주목 받고 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애널리스트가 본 네오위즈게임즈

중국시장 점유율 쑥쑥 ‘장기 성장성’ 주목

증시 전문가들 역시 네오위즈 게임즈에 대해 수익기반이 다양해지면서 실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동양증권증권 이창영 연구원은 “기존 주요 게임이었던 웹보드 게임과 FPS 게임 ‘스케일즈’의 매출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해외와 스포츠게임 매출은 증가하면서 수익 기반 다양화로 실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크로스파이어’의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장기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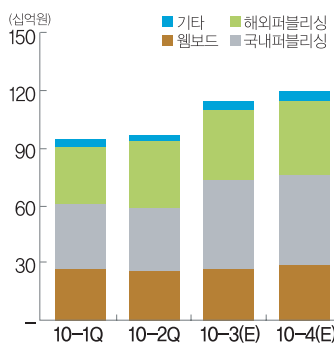
최한식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말 기준으로 게임 ‘크로스파이어’의 중국현지 매출은 약 5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은 4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대표적인 중국 내수 수혜주인 오라온의 올 추정 매

출 약 5200억원, 영업이익 520억원에 못지 않은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 온라인 게임 이용자 비중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중국 시장은 한국 대비 9배의 성장 여력이 존재하고 있다”며 “특히 캐주얼 게임 시장 잠재력이 충분한 중국에서 네오위즈게임즈의 로열티 규모는 국내 게임사 중 1위”라고 말했다.

따라서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개선이 이뤄질 것이라 전망이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은 연구원은 “현재 축구게임 ‘피파온라인2’의 트래픽은 월드컵 시즌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나 월드컵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3분기 실적개선이 가장 두드러지는 게임이 될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네오위즈게임즈는 저평가 돼 있다. 올해 예상 EPS(주당순이익) 기준

네오위즈게임즈 실적 예상



PER(주가수익비율)은 11배 수준에 도달해 있다. 글로벌 게임업체의 평균 PER가 16.7배임을 고려하면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다. 오성원 교보증권 연구원은 “게임업종의 특징인 신작 또는 신규 시장 진출 모멘텀이 부각될 때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되겠지만 현 주가 수준은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각종 DM·홍보물·주보 등 문서접지업무를 간편하게-

업무효율과 매출,
종이접지기로 쭉쭉 올리세요!

돈절약, 시간절약! 초고속 종이접지기

각종 DM, 제품설명서, 리플릿, 주보 등 각종 문서접지업무를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초고속 종이접지기! 수작업보다 15~20배 빠른, 시간당 최대 7,200매까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제 종이접지기로 바꾸세요! 매출과 업무효율이 올라갑니다. 문서접지업무가 있는 곳엔 언제나-

태창시스템 종이접지기

자동접지기 30만원대부터
다양하게 선택하세요!

접지기에 관한 모든것!

NAVER 검색엔진 e태창 올 차별세요

태창시스템

제품문의 02)2107-7795~9 | www.tc2mall.com

음악선율과 함께 가을 속으로...

클래식부터 국악까지 음악회 풍성

폭염과 태풍에 유난히 번덕스러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 밤새가 물어내는 초가을, 다채로운 음악회가 선선한 가을바람을 타고 더위와 일상에 지친 도시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이달에 열리는 음악회들은 클래식부터 오페스트라 연주, 전통예술 음악 등 전국 각지에서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주에는 13일 송덕공동체 창립 75주년 기념음악회와 강남심포니 제45회 정기연주회(Gangnam Sym), 정유정 바이올린 독주회가 열린다.

송덕공동체 창립 75주년 기념음악회에선 성가곡과 이탈리아 가곡 그리고 국악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들이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클래식과 오페라에 기반을 둔 이 음악회는 이날 오후 7시30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영산아트홀에서 개최된다.

같은 날 열리는 강남심포니 제45회 정기연주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연주자이자 강남심포니 악장 바이올리니스트 김경아, 경희대학교 특임교수로 재직하는 첼리스트 송영훈, 스페인 카날스 국제콩쿠르(경연회) 등 다수 입상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피아니스트 조재혁의 베토벤 트리플 콘첼토는 아름다운 가을 저녁을 수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최초로 베토벤의 9개의 교향곡을 CD로 제작(2006년)해 큰 반향을 일으킨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현재 브람스 심포니 전곡 녹음을 기획 중에 있다. 이 음악회의 장르는 클래식으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오후 8시에 막을 올린다.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는 정유정 바이올린 독주회가 같은 날 오후 8시에 시작된다. 바이올리니스트 정유정은 예원학교(중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후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와 아헨 국립음대에 유학을 다녀왔다.

예원콩쿠르 입상과 인천시향 주최 청소년 콩쿠르 1위 입상을 비롯해 인천시향과의 협연을 통해 일찍이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은 그는 서울대학교 재학 당시 핀란드와 폴란드의 음악캠프 참가해 연주활동을 해왔다.

지방공연도 관객들을 맞을 채비를 마쳤다. 17일 경남 진주에선 음악을 전공하는 청소년들의 데뷔무

9월 주요 음악회 일정

공연명	일시	장소(지역)
송덕공동체 창립 75주년 기념음악회		영산아트홀(서울)
강남심포니 제45회 정기연주회	2010년 9월13일	예술의전당콘서트홀(서울)
정유정 바이올린 독주회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서울)
2010 진주첼비오케스트라 청소년 협주곡의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진주)
트리오 한 제20회 정기 연주회	2010년 9월17일	금호아트홀(서울)
KBS국악관현악단 제139회 어린이음악회	2010년 9월18일	KBS홀(서울)
딱따구리 음악회 시즌 2		창주 예술의전당 소공연장(창주)
2010 송정미 음악회	2010년 9월18일~19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서울)
문양숙&변영명 음악회 '가을바람'	2010년 9월24일	국립극장 별오류극장(서울)
딱따구리 음악회 시즌 2	2010년 9월25일~26일	울주문화예술회관(울산)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음악회	2010년 9월26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성남)
작곡동인 지음 창립 10주년 기념음악회	2010년 9월27일	새종문화회관 체임버홀(서울)
정오의 음악회	2010년 9월2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서울)

대이며 맘껏 기량을 펼치는 연주회인 2010 진주첼비오케스트라 청소년 협주곡의가 펼쳐진다. 이 음악회는 이날 오후 7시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에서 선을 보인다.

클래식 밴드 트리오 한(TRIO HAAN)의 연주회도 열린다. 바이올리니스트 유은혜, 클라리네티스트 권복현, 피아니스트 김경옥으로 구성된 트리오 한은 1985년에 가진 창간 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 연주회 및 초청 연주를 통해 국내외의 현대 작품들을 초연함으로써 음악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현대음악전문연주

주방용품 CF '남성 전성시대'

원빈 · 소지섭 · 유승호... 女心 사로잡아

주방용품의 여성CF 독점시대는 끝나는가. 최근 주방용품 CF에 남성모델들이 대거 발탁되면서 주방용품의 CF에 새바람을 몰고 오고 있다.

먼저 원빈은 쿠키 밥솔 모델로 발탁돼 사람에게 빠진 모습을 보여 여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밥솔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마친 후 "여자들은 이렇게 깔끔해요?"라고 칭찬하는 원빈은 실제로도 깨끗한 이미지의 여성이 이상형이라고 한다.

최근 영화 '아저씨'를 통해 거칠고 강한 남자의 모습을 선보인 배우 원빈은 이번 광고에서는 여자친구를 위해 설거지를 하는 자상한 남자로 변신해 사람에게 빠진 여느 남자들과 다를 바 없는 부드러운 매력을 발산했다.

배우 소지섭과 유승호도 김치냉장고 담체의 모델로 발탁돼 기존 김치냉장고 모델계의 삼파전 매력대결이 예상된다.

현재 이승기가 지펠 아삭 김치냉장고를, 기성용과 차두리가 디오스김치 냉장고의 CF모델로 활약하고 있어 이들의 CF를 통한 매력대결도 볼 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기를 모델로 기용한 지펠 측은 "이승기를 모델로 기용한



김치냉장고 담체 모델, 소지섭(좌)과 유승호

후 판매장에서 상층 곡선을 그리고 있다"면서 "이는 여성들이 주로 구매하는 제품이지만 남자 모델로 판매 전략을 잘 짚다면 의외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마케팅 효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 CF 관계자는 "여성들이 구매한다고 여성 모델을 쓴다는 건 단편적인 발상이다. 최근에는 남자복 모델로 여성 스타들이 나서기도 하지 않느냐. CF는 남자든 여성이든 어떤 이가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CF업체에서는 담체 모델로 추성훈이 나선데 이어 지펠 모델로 이승기가 연이어 나서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분석했다. 새로운 선풍 CF는 이선균이 좋은 간장을 고르는 비법을 아내에게 알려주는 콘셉트로 제작됐다.

이선균은 실제 입맛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간장 찜닭과 꽃게탕 등으로 내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키홈시스 마케팅팀 정현교 팀장은 "최근 '아저씨'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톰 배우 원빈을 기용한 광고로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주 고객층인 여성들의 여심을 한껏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옥주 기자 gracebyok@

팜프파탈 가고 '착한 캐릭터'가 뜬다

'김탁구' '동이'...선한 이미지와 감동적 대사 인기비결

팜프파탈의 시대는 왔다. 착한 캐릭터가 시청자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

대표적 캐릭터가 KBS 2 '제빵왕 김탁구'의 김탁구(윤시윤 분)와 MBC '동이'의 동이(한효주 분). 바보처럼 정직하고 착한 캐릭터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동안 선과 악을 넘나드는 '야녀의 유혹', '선덕여왕' 나쁜 남자 등이 인기를 끌었던 반면 '제빵왕 김탁구'와 '동이'가 착한 남자, 착한 여자의 시대를 열었다. 시청률 50%를 고지해 앞두고 있는 '제빵왕 김탁구'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로 주인공 김탁구가 제빵왕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제빵왕 김탁구'는 김탁구의 인생에서 팔봉선생이란 절대 '선'을 등장시킴으로 드라마를 끌어 나간다. "나쁘게 살아야 할지 착하게 살아야 할지 모



르겠습니다"라고 묻는 12살 김탁구에게 팔봉선생은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다"라는 대사로 드라마의 전체 기조를 열었다.

팔봉선생은 죽음에 이르러 김탁구에게 "여차피 인생이란 겪는 것"이라며 "나쁜일도 겪고 슬픈 일도 겪고 좋은 일도 겪고 기쁜 일도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수보다 본인에게 치명적 잘못을 저지른 태조를 용서하는 김탁구는 선한 캐릭터의 백미를 보여준다. MBC 월화드라마 '동이'에서도 주인공 동이의 정직함과 의협심이 드라마 전개의 추동력이 되고 있다. 장희빈의 교묘한 계략에 용기있게 저항하고 정직함을 보여주는 동이는 한효주의 착한 이미지와 어우러져 현재 시청률 30%에 육박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기존 사극에서 보여졌던 권위적인 왕의 모습보다 폭넓은 아량과 인간다운 면모를 연기하는 숙종(지진희)의 활약도 한 몫 했다는 평이다.

한 드라마 제작자 관계자는 "각박하고 이기적인 세태속에서 김탁구나 동이의 착한 캐릭터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며 선한 캐릭터와 감동적인 대사를 인기비결로 꼽았다.

김현정 기자 khj@

뮤지컬 '락 오브 에이지' 한국판 15일 막 올라



배우 안재욱과 남성 아이돌그룹 샤이니의 운유를 비롯해 개그맨 김진수, 가수 제이, 다나, 문혜원 등이 출연하는 뮤지컬 '락 오브 에이지' 한국판이 오는 15일 첫 선을 보인다.

미국 작품이 원조인 이 뮤지컬은 캘리포니아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부동산 업자인 허츠가 시장과 공모하여 이 도시의 기존 상권을 허물고 새로운 도시를 계획하려 하고 이 도시의 전설적인 락클럽인 'The Bourbon' (더 버번)은 강제철거의 위협에 빠진다.

혼란 속에 락 가수의 꿈을 가지고 이 클럽에서 일을 시작한 드류와 배우의 꿈을 이루고자 이 도시로 온 세리가 만나 사랑에 빠지고 강제철거를 막아서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 공연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내달 30일까지 펼쳐질 예정이다.

박태진 기자 tipjappa@

배용준 여행 에세이 대만어판 출간

배용준이 여행 에세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난 여행' (이하 한아여)의 대만어판을 출간한다. 이는 이미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은 한국판과 일본어판에 이어 세번째 판으로 대만어판 출간 이후 중국어 및 영어판도 출간할 예정이다.

배용준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최근 해외에서의 지속적인 출간 요청으로 '한아여' 대만어판이 출간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만어판은 한국에 원문의 맛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도록 1년 여간의 충실한 번역을 통해 완성됐다. '한아여' 대만어판을 출간하는 SBOOKER 출판사는 "일반적인 스타 관련 서적과는 다르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안내서 역할을 통해 폭넓은 연령층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배용준은 작가로서 성실하게 한국 곳곳을 여행한 뒤의 감상과 생각을 진솔하게 담아내 호평받았다.

김현정 기자 khj@

주현미 추석특집쇼 MC 활약

가수 주현미가 MC로 데뷔한다. SBS는 "주현미가 추석특집쇼로 방송될 자사 토크쇼 '스토리오스 부탁해요'를 통해 MC로 데뷔한다"고 밝혔다.

배우 이덕화가 20년 만에 MC로 복귀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 주현미는 개그맨 이수근, 신봉선과 가수 이홍기, 아이유 등과 함께 보조 MC로 활약한다.

지난 4월 KBS 해피FM(106.1MHz)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통해 라디오 DJ로 데뷔한 주현미는 TV 토크쇼에도 합류하면서 예능과 라디오를 넘나들며 입담을 과시하게 됐

다. 한편 '스토리오스 부탁해요'는 추석 연휴 기간에 120분 편성될 예정이다. 한옥주 기자 gracebyok@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로
확인하세요.

Twitter & FaceBook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만드는 신 인맥지도

새로운 만남의 광장에서
인맥의 '판'이 바뀐다!

소셜 웹 시대. 이 거대한 광장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생두마차처럼 내달리고 있다. 포털의 자상한 서비스에 질렸던 국내 사용자들에게 첫인상은 야생마일 듯하다. 이 책은 그 야생마를 길들이 가장 앞서 달려나간 저자의 경험을 고스란히 담았다.

—한국일보 미디어 전략부장, 인터넷한국일보 온라인에디터 **홍진석**

단순한 SNS 매뉴얼이 아닌 트위터, 페이스북을 200% 활용한 인맥 만들기 프로젝트. 이 책의 출간은 트위터에 대표되어 거의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나에게 반갑기 그지없는 일이다. 내게는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수십 번 만난 사람보다 더욱 가까운 트위터 친구들이 많다. 단순한 소통을 넘어 기자 일을 하는 데 더 없이 든든한 후원자이자, 지원군들이다. SNS 입문자는 물론 중독 수준을 보이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될 것이다.

—스포츠동아 기자 **양형모**

양광모 · 원심 지음 | 272쪽 | 12,000원

Tel 02-322-6144/ Fax 02-325-6143/ www.muhan-book.co.kr
참신한 작가의 글을 기다립니다 muhanbook7@naver.com



하이팅! 코리아 창업주에게 배운다



| LG그룹편 |

한국 전자산업의 효시

연암 구인회 <제 11화 부산에서 서울로> 글·만화 유영수

"남이 미쳐 안 하는 것을 선택하라.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부터 착수하라. 일단 착수하면 과감히 밀고 나가라. 성공해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것에 도전하라."



미래경제 선도하는 바른 뉴스

경제신문 이투데이

이투데이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투데이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공과 투자의 파트너 이투데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이투데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1st Anniversary



새로움의 한 획을 그은 1년이었습니다

쏘나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한 해였습니다
신형 쏘나타 1주년 15만대 판매, 고객님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신형 쏘나타 1주년 기념 [초저금리 1% 할부프로그램]

기간: 9월 1일 ~ 9월 30일

Art of technology
SONATA

www.hyundai.com

■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수기공모

- 응모기간 : 9월 6일 ~ 9월 30일 • 대상고객 :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
- 응모방법 : 현대차/어린이재단 홈페이지 또는 교통방송 이홍렬의 라디오쇼 수기 접수
- 고객혜택 : 총 20개 우수작 선정, 300만원 이민자 고향방문 여행상품권 증정
- 당첨발표 : 9월 20일 ~ 10월 13일 이홍렬의 라디오쇼 발표 및 소개

■ 글로벌 넘버원 공장투어 이벤트

- 응모기간 : 9월 6일 ~ 10월 30일 • 응모대상 : 현대차 보유고객 및 내방고객
- 응모방법 : 홈페이지 및 전시장 방문 응모 (단, 전시장 응모는 8일부터 가능)
- 고객혜택 : 총 100명 추첨 현대차 해외 공장 견학 기회 제공 (미국/중국/인도/체코/터키 각 20명)
- 당첨발표 : 11월 5일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사랑나눔 수호천사 캠페인

- 어린이재단 5만원이상 기부고객께 10만원 차량구매 혜택 제공
- 헌혈증을 당사에 기증해 주신 고객께 10만원 차량구매 혜택 제공
- 2010년 신생아 출산 및 다자녀고객께 10~30만원 차량구매 혜택 제공

※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본인 부담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

■ 구입 문의전화 1588-0550 휴대폰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고객센터 및 긴급봉사반 원콜서비스 080-600-6000 ■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2.0 VVT: 13.8(13.0)km/ℓ / CO₂배출량: 170(180)g/km / 배기량: 1,998 cc / 공차중량: 1,400(1,415)kg / 수동6단(2등급), 자동6단(2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마십시오 ※ 정속주행을 합시다 ■ 현대자동차는 지점/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BLU hands 차량관리서비스는 BLUhands가 책임지겠습니다
회원혜택 : 블루점검, 캐어서비스 / 긴급출동 / 블루포인트 / 견인서비스